

디 자 인
충 남

발행

2017년 6월 30일

발행인

강현수

발행처

충남연구원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041-840-1123
www.cpdcre.kr

기획

충남공공디자인센터

협력기관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인쇄

삼성애드피아

CONTENTS

Column

002 공간의 재탄생, 오늘의 공간들 김주연 교수

Review :
국내외 디자인 선진사례

008 美麗之島(FORMOSA) : 대만의 어제와 오늘 김병윤 교수
016 공원이 아닌 공원 김 현 교수
024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 '신기방기 놀이터' 박혜은 전임연구원
030 붉은 언덕(홍현:紅峴) 위의 열린 공간, '북촌마을안내소' 김성희 연구원

Level up : 컨설팅 사례

038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영상관 건립공사 당진시
040 논산소방서 색채디자인 논산소방서
042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천안시
044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외광고물 디자인 충청남도
046 수촌초등학교 복도 색채 및 놀이공간 디자인 충청남도교육청
048 천안삼거리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충청남도교육청

Team : 논산시

052 공공디자인이 이끄는 연산역의 행복한 변화 문태훈 팀장

Focus : 센터 정책연구

058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060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062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국내 정책·제도 동향

066 디자인 정책 및 연구 동향
074 중앙부처
089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104 자료 출처

공간의 재탄생, 오늘의 공간들

홍익대학교 디자인콘텐츠대학원장_김주연 교수



조선일보 신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있었다. ‘다방에서 전시, 창고에서 파티, 공장에서 식사 ... 폐허의 재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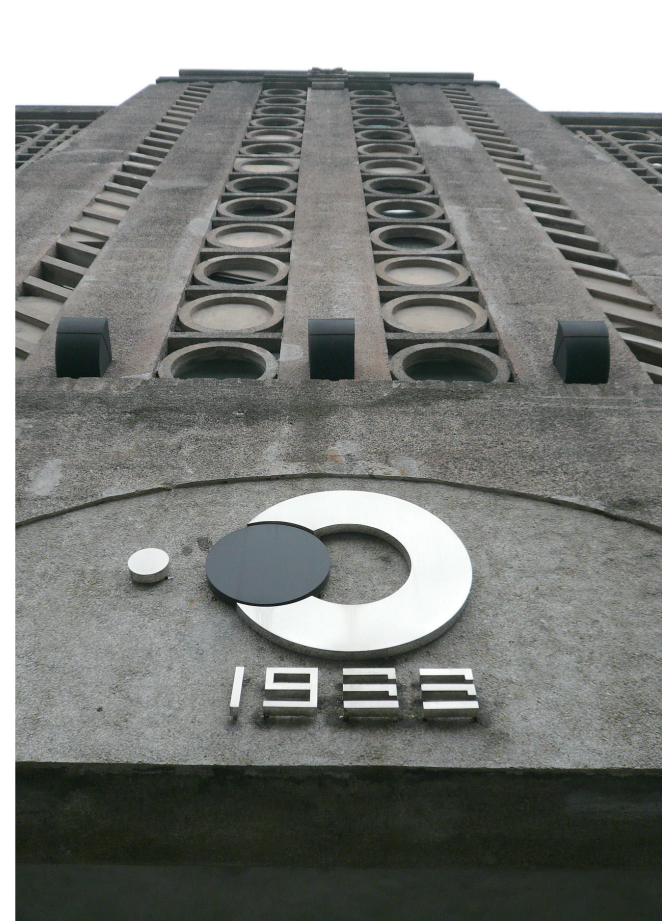
그 기사에서 송해진 기자는 이렇게 묻고 있다. “창고에서 파티하고 공장에서 밥 먹는 게 유행이다. 쓰러져 가는 다방 건물 지하에서 전시회를 하고, 충주 정미소에서 가져왔다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커피를 마신다. 철근 자재를 마구 쌓아 놓은 철공소 같은 식당일수록 사람이 몰리고, 폐선(廢船) 자재를 뜯어

내부를 꾸민 옷 가게일수록 ‘핫(Hot · 새롭게 인기를 끈다는 뜻)’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대체 왜 이럴까?” 성수동 1970년대 정미소 창고를 패션 론칭쇼나 파티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한남동 ‘구슬 모아 당구장’을 대림미술관이 운영하는 ‘대안공간 갤러리’로 사용하는 등의 현상에 대한 기사였다.

이 기사를 위한 전화인터뷰를 받았던 필자는 “넓고 퇴화한 공간일수록 독특한 시간의 흔적이 남고, 그 공간에 머물렀던



▶ 사진 1-2.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내부



▶ 사진 1-3.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외부

사람들의 기억이 남기 마련이다. 문화 엘리트들은 폐허에서도 바로 이런 시간성과 역사성을 읽고 싶어 한다”고 밝혔었다. 이제 부동산으로 대표되던 공간의 가치에 대한 경제적 사고가 바뀌고 있다.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가진 ‘공간에 대한 기억’이나 과거로부터 전해진 ‘공간의 스토리, 역사’가 그 장소, 공간의 무형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새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이고,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할 것, 악한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었다.

그 사고에는 일제 강점기부터의 오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강점기에 일본인들은 그들이 만든 새로운 산업 생산품을 팔고자 새것은 좋은 것이고 오래된 것은 버려야 할 것으로 여기게 하였고, 제3공화국 군사정권 시절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취지의 ‘새마을 운동’은 ‘초가집도 없애고...’라는 노래에서 보듯 불편한 옛것을 없애고 편한 새것을 취하려는 사고를 깊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이후 경제 부흥기에는 부동산 ‘공간’은 경제적 가치가 최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눈 뜨면 오르는 시기에, 사람들은 너도 나도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 ‘살 집’보다는 경제적으로 팔 때 가치가 있을 것 같은 ‘팔 집’에 몰인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고는 사람만이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공간’을 경제성 있는 투자처로 행동하게 하였다.

시대가 변해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 옛것을 없애고 새것을 짓는 건설 주도로 발전해 왔던 국가 경제는 안정기에 들어왔다. 이때부터 새것도 새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새것이나 또는 다른 내재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을 가진 새것, 또는 새로운 생각으로 살필 수 있는 옛것에 관심을 옮기게 되었다. 마침 이때 세계 경제도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었고, 투자처의 일 순위이었던 부동산도 그 경제성이 없어져 ‘팔 집’으로서의 가치가 퇴색해져 갔다. 이때부터 부동산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경제적 관심은 그 공간 안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 문화적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동시대의 옛것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게 된 때이고, 북촌으로 대표되는 강북 한옥에 대한 관심을 끌게 된 시기일 것이다. 한옥으로 대표되던 전통 공간, 옛것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근현대에 지어진 건물 또는 공간으로까지 확산되어 그 공간에 내재된 문화적 가능성이 탐색되고 있다. 비록 그 탐색에 또 하나의 숨겨진 ‘경제적’ 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동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화적 자존감을 갖게 하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기사 속의 한남동 ‘구슬 모아 당구장’이나 국군 기무사령부의 기존 건물을 활용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바로 그 자존감의 사례가 된다.



▶ 사진 1-1.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근대 산업 유산으로 남겨진 유희공간을 문화공간으로의 재생시킨 국내외 대표적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본다면, 맨 처음 생각나는 것이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뜨 언덕과 같이 일 년 내내 주말이면 거리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펼쳐지는 영국 런던의 ‘코벤트 가든 (Covent Garden)’이다. 수도원 부설 야채 시장으로 사용되던 주철식 아케이드형 공간은 1970년 시장의 이전으로 빈 곳이 되었고,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펍(Pub)과 상점들이 들어서며 현재 런던의 대표적 거리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코벤트 가든 공간의 문화적 재활용은 특별한 계획을 하지 않았어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 성격이 만들어진 경우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특히 중국은 최근 방치되는 공장지대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예술 단지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북경의 ‘798 예술구’와 상해의 ‘M50 예술촌’이 유명하다. 이들과 더불어 중국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최근 건물 재활용의 사례로는 상해의 ‘1933 라오창팡(老場坊)’이 있다. 영국 건축가 C.H Stablefold가 설계한 정부 운영 최초의 육류 도살장이 2002년 가동 정지 방치되어 있다가 2006년 우수 역사 건물로 지정된 후 최대한 당시 모습을 살려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하여 웨딩홀, 드라마 제작소, 갤러리, 설계소, 극장,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인 대상의 거대 도살장으로 하루에 1,000여 마리의 소, 돼지를 잡던 이곳은 지금 상해를 대표하는 문화 공간이 된 것이다. 한때 소의 울음소리와 선혈이 낭자했을 장소가 그 건물 자체의 독특한 조형미로 이제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이 된 것이다.



▶ 사진 1-5.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내부



▶ 사진 1-4.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외부 전경

우리나라의 경우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의 사례는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하나 꼽자면 서울의 양화대교 중간에 위치한 선유도 공원 일 것이다. 선유도 공원은 조성용 건축가에 의해 과거 정수장의 건축구조물을 재활용하여 2002년 개원한 서울시민을 위한 멋진 환경재생 생태 공원이다. 수려한 풍광으로 유명했던 선유봉에 일제 강점기 정수장이 1978년도에 건설되어 그 천혜의 아름다움이 훼손된 현장을 각종 수생식물과 초목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처이자 환경교육의 장으로 탈바꿈, 공원으로서의 장소성을 회복시킨 것이다. 독일 조페라인의 경우처럼 이곳도 송수펌프실 건물은 기계적 그 원형을 간직하며 한강의 역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함께 가진 ‘공간에 대한 기억’이나 과거로부터 전해진 ‘공간의 스토리, 역사’가 그 장소, 공간의 무형적 자산이다. 선유도 공원의 경우 모두 우리만의 스토리에 대한 자신감이 그 자산의 힘이다. 근대 산업 유산들은 당시의 사회 문화적 관계 속에서 역사적 가치, 사회적 가치, 미학적 가치, 기술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공간적 가치, 장소적 가치 등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들을 존재하는 그대로 담고 있는 장소와 공간은 현재의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대한 잠재적 가치가 존재한다. 그 유희공간들의 잠재적 가치를 현대인과 소통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화적, 예술적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Review

: 국내외 디자인 선진사례

美麗之島(FORMOSA) : 대만의 어제와 오늘 008

대전대학교 건축학과_김병윤 교수

공원이 아닌 공원 016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_김현 교수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 '신기방기 놀이터' 024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_박혜은 전임연구원

붉은 언덕(홍현:紅峴) 위의 열린 공간, '북촌마을안내소' 030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_김성희 연구원

美麗之島(FORMOSA) : 대만의 어제와 오늘

대전대학교 건축학과_김병윤 교수



우리와 유사함을 지닌 대만의 도시재생 특성화 지역 및 유적지 실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대로 대만은 탁월한 지리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근대 동서 문화의 충돌과 경험을 넘어 무려 300여 년 동안의 역사 변천이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열강 쟁탈의 현장성과 분열, 갈등의 문화적 특별성도 동시에 지닌 곳이며 건축과 도시재생의 현장성을 경험하는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동아시아의 비극적 근대역사 발자취를 보는 현장으로써 중요한 곳이기도 하며, 근대건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활동도 활발해서 한중일 연구 교류가 많고 지속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만은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지리적,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의 현대도시와 유사한 재생 기록을 현실적으로 잘 간직하고 있어 도시재생 사례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 간단하게 대만의 도시들을 보기 전에 이곳의 역사 변천을 살펴본다.



▶ 사진 2-1. 홍모성



▶ 사진 2-2. 홍모성 구 대사관 모습

1. 충돌의 섬

대만은 지리적으로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열강의 쟁탈이 많은 곳일 수밖에 없었고 근대 동서 문화의 충돌을 모두 경험한 충돌의 섬이라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포문을 대만쪽으로 열고 주기적으로 포사격을 전시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본토 중국은 대만을 모든 면에서 위협하는 동포라 하겠다. 이들이 대만에 이주한 것은 17세기로 명에서 청으로 이어지는 중국 대륙 변혁의 역사와도 동행하며 네덜란드와 50년에 걸친 일본의 외세 침탈의 시간을 보냈다. 연아당이란 대만 통사의 작가이자 혁명가는 대만의 역사적 실상에 대해서 “대만은 네덜란드인이 열었고 정성공이 만들었으며 청나라가 경영하여 실제로 성공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큰 기틀을 세운 지 거금 300여 년이 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만은 바다 위의 황량한 섬으로 형편없는 누더기의 삼림이 펼쳐져 있었으나 지금에 이르러 바다로 통하는 것에 의존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 이후 서양의 세력이 동쪽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거대한 외세와의 충돌은 일본의 50년간 식민지 지배, 이곳을 새로운 문화 변혁의 실험장으로 근대화를 촉발하였다. 하지만 단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의식화에 있었다고 보이는 현실은 대만 대학의 대학 체계가 일본의 연구와 개발된 유대라는 점이다. 중국 대륙과 동행하는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사실 대만의 300여 년 역사는 지리적으로 매우 독특한 독자적 자긍심을 우월하게 존속시키고 있다 하겠다. Formosa라는 포르투갈 명은 ‘아름다운 섬’이란 별칭으로 포르투갈 선원들이 섬의 모습에 매료되어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날 대만의 또 다른 이름으로 통한다.

2. 충돌의 끝에서 자란 대만의 건축

앞서 충돌의 역사에서 미루어 짐작케 하듯이 대만 건축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역사학자의 말을 빌려 보더라도 일본의 건축 역사학자는 대만에 출현했던 건축양식을 원주민 고사족 건축, 중국 대륙계 건축, 서양계 건축으로 구분하였고. 대만 학자의 자체적 설정에서 보면 시기적 측면에서 원주민 지배 시기, 한족의 초기 이민 시기,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점거 시기(1624년~1661년), 명대 정성공의 지배시기(1622년~1682년), 청대 전기(1683년~1820년), 청대 중기(1821년~1874년), 청대 후기(1875년~1895년), 일제강점기(1986년~1945년), 광복 이후 시기 등으로 세분화해서 보고 있다. 두 비교사학 중 대륙의 시기를 좀 더 세분한 점 외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희미함 속에서도 우리의 근대역사를 유전자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와 유사하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서양 건축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듯이 대만의 경우도 다양한 시기, 또한 이식의 지배적 충돌의 틈에서 자란 다양한 건축의 흐름이 전체적인 대단원의 지구적 건축 변화와 동행함을 볼 수 있다.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자리한 풍토 지역적 특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이입은 물론 일본의 강점기를 기록하며 발생한 건축을 들 수 있을 것이고 중국 본토와 서방의 건축이 남긴 현대의 자산은 산 도밍고(San Domingo) 성과 같이 단편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다. 수백 년의 역사를 통해 남겨진 이 건축유산은 현재의 도시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며 재생을 전제로 한 지속의 의미를 지니고 탐구의 대상이 된다.

일인들이 실행한 침탈의 수법이 우리에게 했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축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태양의 방향을 따라 총독부의 전면을 동쪽으로 면하게 하는 등 방향 지시의 조작은 일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고 보인다. 우리가 고단한 역사를 통해 수난을 당했던 오류를 수정하는데 고민해온 것이 이곳에서도 같은 맥락의 변화일 수 있다.

3. 도시재생 주요사례지

소개하는 자료가 극히 일부라고 여긴다. 하지만 대북과 대중(타이중)을 연결하는 주요 도시맥락 차원에서 보더라도 대만의 주요 도시재생 사례를 일견하여 관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는 기억을 전제한 그것이 잔해라 해도 지속시키고자 하는 시간과 지혜의 존재감일 것이다. '홍모성' 역시 이미 300년의 역사를 지나온 시간의 수레바퀴 속에 남겨진 잔해와 재생으로 지탱하고 있는 그 땅의 역사기록 중 하나이다.

• 단수이 홍마오청(紅毛城)

타이베이시의 단수이 강을 건너면 산 도밍고 성, 스페인의 옛 건축 홍마오청을 만나게 된다. 스페인이 산 도밍고 성을 건립하고 16년간 이곳을 지배한 근거지로 삼았고, 먼저 이 땅에 발을 들인 네덜란드는 38년간 이곳을 요새와 대사관으로 사용했다. 이 성채와 본관동 외관은 벽돌집의 아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오랜 시간 재축과 재생의 재현이 이루어져 그 원형을 찾기는 쉽지 않으나 지금의 붉은 모습으로 지나간 시간을 알리는 요새 홍모성이 바로 역사적인 것이다. 홍모성이라는 이름도 화란인의 붉은 머리를 상징하여 붙여진 것이다. 이후 다시 이곳은 영국의 영사관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처럼 주위의 진리대학 캠퍼스와 연결되어 개방된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유적을 둘러보는 관광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재생을 통한 관리를 잘하는 예라 할 수 있다.

• 화산1914/창의 문화원구/아트문화전시관

아트문화전시관으로 전환 전까지는 술을 만드는 양조장이었다. '화산 1914'란 명칭은 북경의 '798 예술구'나 상해의 'M50 예술촌' 등 폐공장을 개조하여 예술 생산과 전시공간으로 전환한 예들을 연상하게 한다. '1914 창의문화원구'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과일주를 생산하던 양조장이었다. 재생의 결과 이곳은 공연 전시 볼거리들로 풍족한 옥외공원의 자연감과 더불어 건축을 통해 지나간 시간여행을 현재에 가능케 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가 되었다.



▶ 사진 2-3. 화산1914

• 보피아오 역사거리(Bopiliao Historical Block)/예술촌

이 거리는 청나라 시대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건축을 통해 역사거리를 지속하고 있다. 이 거리와 맥을 같이하는 중요한 건축은 1700년대 초 청나라의 진입으로 세워진 최초의 사찰이며 대만 신앙의 중심인 맹갑지구 용산사이며 근거리에 위치하여 당시의 시간을 아름으로 동행하듯이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300년이 넘는 시간에 건축은 홍모성처럼 잔해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이 보피아오 역사 거리처럼 당시 대륙의 도시와 건축을 간직한 경우도 있다. 가로를 중점으로 건축은 마치 베트남의 튜브 하우스(Tube House)와도 같이 연접하여 이어지고 있다. 서양의 바이로하우징(Bi-row housing)과도 유사해 보이지만 특이한 점은 하부의 구조를 아케이드형으로 비워두고 있는 점이 현대의 도시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유용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탈리아의 도시주거는 아래층과 상부에 통행을 위한 공공의 길을 만들어 냈는데 대만의 여기서도 300년 전의 지혜를 엿볼 수 있게 된다.

▶ 사진 2-4. 보피아오 역사거리



• 송산문창원구(松山文創園區)

일본의 점유 시대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37년 마츠야마 담배 연초제조 공장을 건립했고, 이곳은 비교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대건축의 기본을 갖추고 양호한 조건의 작업장과 후생복지시설도 갖춘 근대산업의 선도적인 모습을 지닌 시설이었다. 일본이 떠난 이후 이 담배공장은 대만 최고의 전매 공장이 되었고 90년대 이후 담배가 사양 산업이 되기 전까지 번창하였던 곳이다. 대만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대부분 시설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양한 문화예술 생산 활동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예술 활동과 전시, 디자인의 제반 생산 메카로 부상한 이곳은 대만 디자인센터와 미국이 합작으로 창의혁신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상업적 이유를 떠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융합적 창의의 허브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점유된 장소의 재생과 지속이 현재에 동행하며 과거의 장소가 지닌 물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현예술을 실현하는 지혜의 장소를 구축하고 있다.

▶ 사진 2-5. 송산문창원구(松山文創園區)



▶ 사진 2-6. 문화창의산업원구(臺中文化創意產業園區)

• 타이중 문화창의산업원구(臺中文化創意產業園區) / 타이중 아트 스트리트-양조공장의 부활

타이베이를 벗어나 대전쯤에 위치한 타이중은 타이완의 문화산업 번성기에 산업의 중심지였으나 어디에서나 그런 것처럼 소멸의 시간을 맞는다. 이곳 역시 개발에 대한 의지를 묻고 북경의 '798 예술구'처럼 예술에 그 넓은 모습을 내어준 곳이다. 일본인이 남기고 간 이곳을 정부가 구입하여 예술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옛 날 주류공장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만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좀 늦었지만, 우리가 인천에 아트플랫폼을 만든 것도 이와 유사한 도시재생의 글로벌 바람에 힘입은 것이라 하겠다.

• 타이중 보장암 국제예술촌과 공원안과

타이중 보장암 국제예술촌은 글로벌 예술촌을 꿈꾸며 대만 예술과 지구촌 예술을 만나는 기대로 조성된 레지던시를 포함한 예술지구이며 다양한 디자이너와 예술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다. 기후 탓으로 야자수와 수림이 좀 더 좋은 환경인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감천마을처럼 언덕에 규칙 없이 들어선 언덕 마을과도 같으며 흡사 통영의 동피랑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외된 곳들이 따뜻한 예술의 바람으로 훈훈하게 다시 피어나는 애뜻한 마음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 시대 예술인 마을 조성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과거 대만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강가의 돌을 주워 터를 닦고 판잣집을 지어 조성한 판자촌이다. 도시재생의 바람에 힘입어 정부 관리하에 예술가와 주민들의 집합 주거 형태의 예술촌이 조성되었다. 남루해 보이지만 과거 대만의 모습을 보존한 장소로 이곳 국제예술촌은 젊은이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인데, 단순히 대만의 과거 모습을 복원시킨 정제된 관광지의 모습을 넘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삶이 계속되어온 '살아있는' 예술촌이라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람 사는 모습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상의 생활이 이곳 예술촌에 파고들고 있어 사람의 체취가 묻어나는 곳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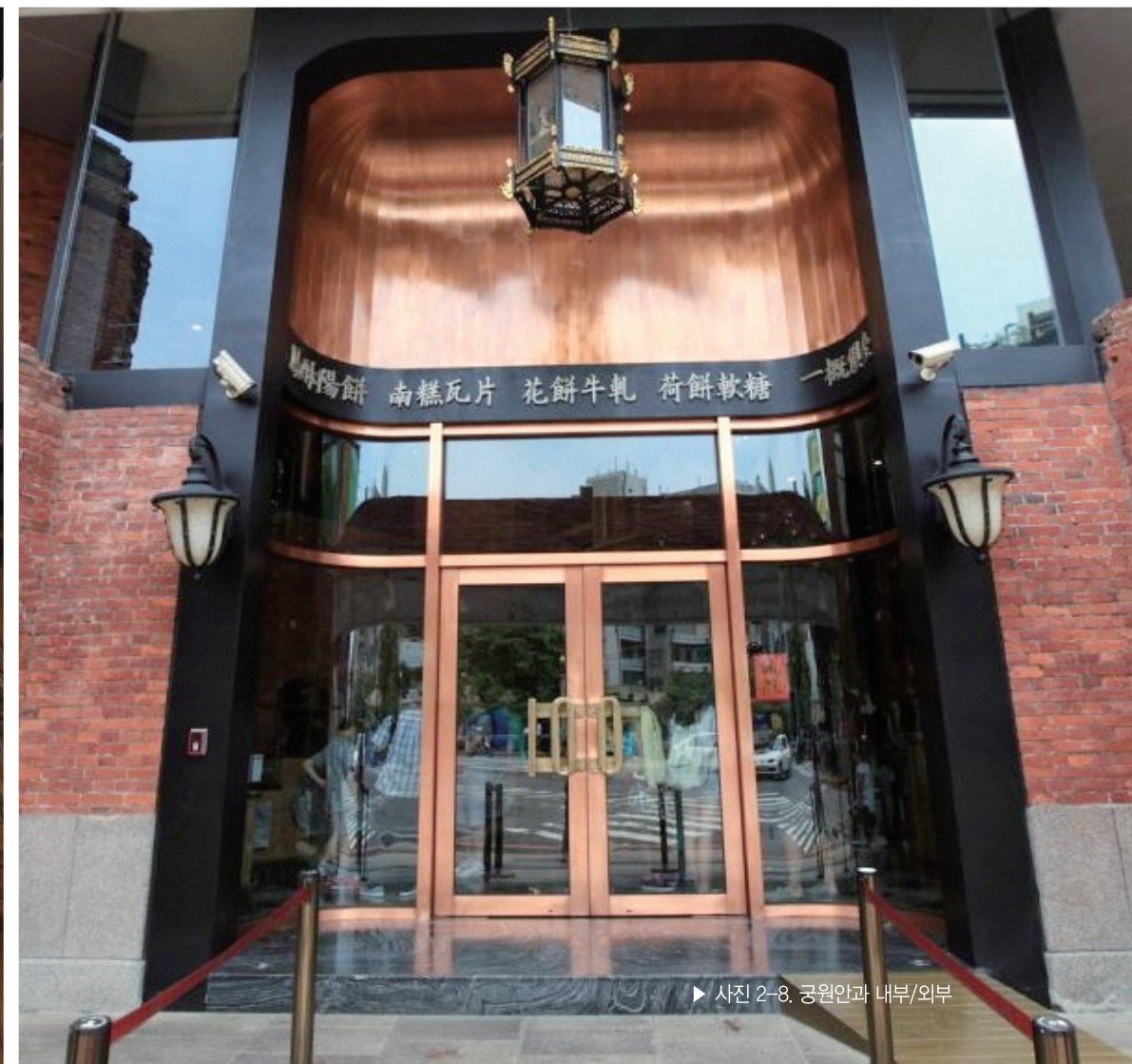
특히 옛 병원시설을 개조한 공원안과 제과점이 방문객에게 인상적인 도시의 매력을 느끼게 한다. 기차역 창고 의원시설 등 일상의 장소들이 지닌 시간을 모두 현재에 함께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는 것이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의 지속을 전제한다.

4. 건축의 지혜

4차 산업이 화두가 되는 지금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재생의 바람은 거부할 수 없이 우리의 일상에 작용하고 있다. 공장과 창고, 광산과 폐광촌 등 지난 산업시대의 잔존 시설들을 포함하여 일상에 존재하는 지나간 시간의 흔적들이 모두 우리의 기억과 추억을 부추기며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기에 이 시대 건축의 지혜로움은 이들의 재현과 리사이클링으로 친근하게 다가온다. '지혜로운 미래는 과거에 있다'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재생의 의미를 잠시 대만의 몇몇 장소를 통해 살펴보았다.



▶ 사진 2-7. 보장암 국제예술촌



▶ 사진 2-8. 공원안과 내부/외부

공원이 아닌 공원

단국대학교 녹지조경학과_김현 교수



급속한 도시화와 국민소득 증가로 도시민이 건강과 여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김예성 · 김현 · 고진수, 2015). 이에 따라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정의하고 1인당 공급면적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원 조성의 주체인 지자체는 높은 지가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2013년 수립된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12.5㎡/인이라는 지표가 모든 지자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그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일본 등 공원정책을 선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공원사업이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하천, 운동장은 물론 폐철도 등 용도를 상실한 건축물, 유허부지를 대상으로 공원의 공급 및 생태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도시재생”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서울시립미술관 주변 녹지공간, 연트럴파크, 서울로 7017 등은 도시 계획상 공원이 아니지만 도시민들의 허파로 작용하면서 도시의 활력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은 아니지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시의 공원으로 이용되어 지역을 재생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역을 흐르는 물길, 용도가 다 된 문화유산, 비어 있는 땅에 지역의 맥락과 도시의 수요를 교감한 점점을 찾고 생태적, 과학적인 설계 개념 및 과정이 적용되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과 사랑을 받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원’ 4개소를 소개한다.



▶ 사진 2-9. 빗물 정화 연못 상부의 스카이워크(skywalk)는 방문객들에게 습지 위를 걷는 경험과 전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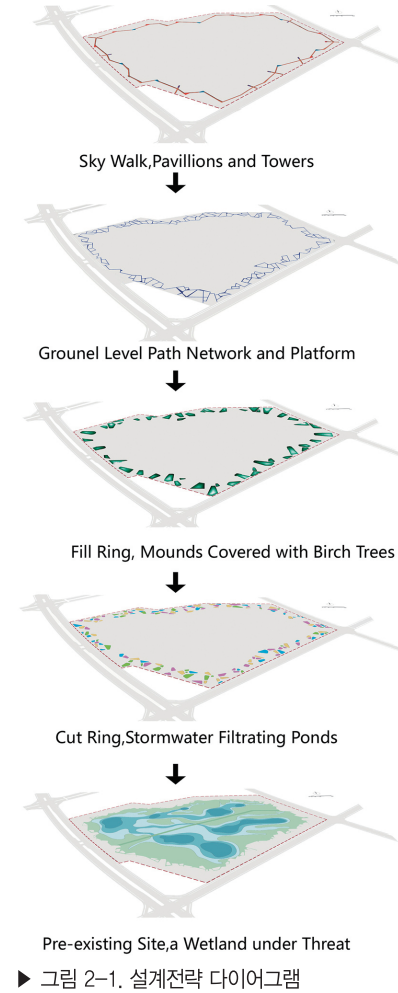
▶ 사진 2-10. 스카이워크와 대나무 파빌리온은 휴식공간과 습지대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지역을 흐르는 물길과 습지(Qunli Stormwater Park)

중국의 대표 조경 사무소인 Turenscape은 현대 도시에서 홍수 등의 지표수 침수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면이 도로와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진 138,000㎡의 기존 습지에 생태 공원을 계획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빗물 정화와 생태계 서식지 보호, 지역주민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공원의 디자인 전략은 첫째, 기존 습지의 중앙부는 자연 서식지가 계속 진화할 수 있도록 그대로 남겨두고 둘째, 컷 앤 필(cut-and-fill) 방식을 이용하여 공원 외곽부의 마운딩과 연못을 이용한 완충 지대를 조성하였다. 이 완충 지역은 도심지에서 습지로의 빗물 여과 및 자연과 도시의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보행로와 플랫폼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경관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스카이워크(skywalk)와 5개의 다른 재료를 적용한 파빌리온, 2개의 전망대를 주요 공간에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는 습지 위를 걷거나 다양한 장소에서 자연과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과학적이면서도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진행하여 홍수 방지 및 지표수 정화, 지하 대수층 재충전 등 물리적 기능과 함께 기존 습지대의 생태 서식지가 복원되어 토착 생물의 다양성이 증진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휴식은 물론 학습을 지지하는 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사진 2-11. 전망대로 연결되고 있는 스카이워크와 하부 플랫폼



▶ 사진 2-12. 이누지아 세이렌조 외관

용도가 다하여 버려진 문화유산 이누지마 (犬島)아트 프로젝트 세이렌조(精鍊所)

세토우치 해 여러 섬 중 한국에도 잘 알려진 나오히마(直島)에서 조금 떨어진 이누지마는 2015년 기준 54명이 사는 작은 섬(0.54km²)이다.

1909년 오키(帯江)광산의 공해문제로 제련소가 이누지마로 이전되면서 관련 근로자 2,000명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약 6,000명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였고, 1918년에는 이누지마 초등학교가 개교하는 등 번성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1919년 제련소의 조업 정지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1991년 섬 내의 모든 학교가 폐교¹⁾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오히마를 부흥시킨 기업, 베네세 그룹의 후쿠타케 소이치로(福武總一郎)회장이 나오히마 후쿠타케 미술관 재단(直島福武美術館財団)을 설립하고 이누지마 제련소 부근을 야나기 유키노리(柳幸典)와 함께 10년간 계획하여 2008년 4월 이누지마 아트 프로젝트 세이렌조를 개관하였다. 산부이치 히로시(三分一博志)건축가가 함께 작업하였다.

야나기는 당시 뉴욕에서 작업을 하며 세속화, 자본화되는 현대미술에 회의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 1992년 나오히마의 베네세하우스 개인전에 초대받아 나오히마를 포함한 세토우치 해 섬들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누지마 구리 제련소를 보고 새로운 예술적 감흥을 받았다고 한다. 아름다운 이누지마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있는 구리 제련소, 그리고 20세기 일본 근대화의 모순과 슬픈 역사를 머금은 폐허가 된 이누지마의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진정한 창작 활동을 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이후 그는 이곳에 산업 폐기장이 들어설 것이라는 계획을 듣고 후쿠타케 소이치로(福武總一郎) 회장에게 이누지마를 예술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로 구리 정련소미술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1) 현재 폐교는 정비 · 증축하여 공영 숙박시설인 이누지마 자연의 집(犬島自然の家)으로 활용되고 있다.



▶ 사진 2-13. 이누지마 세이렌조 외관



▶ 사진 2-14. 이누지마 세이렌조 내부



▶ 사진 2-15. Lowline Lab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 사이트뿐 아니라 뉴욕시의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활용, 평일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멘토십 및 직업 훈련장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하여 전시행사 진행

‘존재하는 것을 살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창조한다’라는 컨셉으로 조성된 세이렌조는 기존의 굴뚝, 구리 벽돌, 태양과 지열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산부 이치 히로시(三分一博志)의 건축과 일본 근대화에 경종을 울렸던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²⁾를 모티브로 한 야나기 유키노리(柳幸典)의 작품이다. 그리고 식물의 힘을 이용한 고도의 수질 정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산, 건축, 예술, 환경이 함께한 지역창조 모델로서 순환형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전면 공간이 매우 인상적인데, 화강암과 해수면으로 점, 선, 면을 이루고 있다.

건축물은 과거의 모습을 잃지 않지만 현대예술을 온전히 품는 진정한 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위적인 냉난방시설, 조명을 배제하고 자연의 바람과 빛이 온전히 그 힘을 발휘하며, 인간의 배설물이 미술관 부근에 식재된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체렌소 부근의 남은 구리 재료와 그 흔적이 담이 되고 벽이 되어 하나의 형상을 이루도록 조작되어 있다. 특히 미술관 입구의 ‘용광로’는 산업화에 함께하지 못한 이누지마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산업화가 가지는 모순과 슬픔을 담고 있으며,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의 집과 소설의 흔적을 이용한 작품은 일본의 정신, 이누지마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비어 있는 지하공간 로우라인(Low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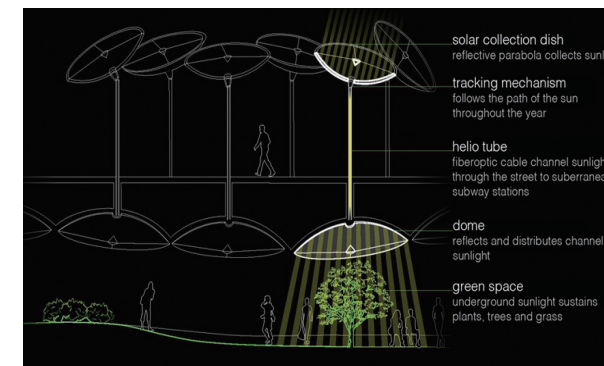
재생 공원의 대표적 사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뉴욕 맨해튼의 하이라인이다. 약 20조의 놀라운 경제효과를 가져왔다는 하이라인의 성공 이후 지하 공간을 공원화시킨 로우라인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로우라인은 2021년 준공 예정이다. 뉴욕의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대상지는 1908년 트롤리 정차장으로 개장되어 1948년까지 사용되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시민들에게 잊혀진 공간이 되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며 특히 그늘 공간을 선호하는데 비하여 오픈된 공간에서 햇빛을 즐기는 미국인들에게 이러한 지하공원 개발은 매우 새롭고 신선한 도전이었다.

잊혀져가던 지하의 공공공간을 재조명했다는 것에 외에도, 로우라인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신기술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지하공간의 수목이 자라는 데 필요한 태양광을 지상에서 지하로 끌어들이는 ‘Remote Skylight’ 이것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포물선형 접시를 통해 지상의 태양광을 모아 지하공간으로 전달시킨다. 특히 놀라운 점은 수목의 광합성에 꼭 필요한 파장의 빛이 선별되어 전달되며, 햇빛이 지상에 비추는 동안에는 추가적인 전력이 사용되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뉴욕시는 2015년 10월 프로젝트의 현실성과 경제성을 판단하기 위해 Lowline Lab을 설립하였다. 대상지에서 불과 2블록 떨어진 곳에 마련된 연구소는 프로젝트의 테스트 사이트이자 쇼케이스로 활용되었다. 이곳에서 연구원들은 로우라인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 약 70여 종 3,000주 이상의 식재와 태양광 기술을 실험하였다. 2017년 2월 폐장까지 이들은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갔다.



▶ 사진 2-16. 개발 이전의 로우라인 모습



▶ 그림 2-2. Remote Skylight 다이어그램

2) 미시마 유키오는 일본의 소설가로 본명은 히라오카 기미타케(平岡公威)이다. 대표작은 “금각사(金閣寺, 1956)”로 전후세대의 니힐리즘이나 이상 심리를 다룬 작품을 쓴 극우 작가이다. 후쿠타케 회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누지마의 미시마 유키오의 집을 야나기 유키노리가 예술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했고 그는 집의 자재들을 이용해 미술관 곳곳에 설치작품을 만들었다.



▶ 사진 2-17. 로우라인 내부

완전히 비어있는 땅 요요기 빌리지 바이 쿠르크(Yoyogi Village by Kurkku)

요요기 빌리지는 요요기 역(代々木駅)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입지한 약 2,100㎡의 유휴부지에 조성된 컨테이너를 활용한 기간 한정 프로젝트이다. 학원기업 요요기 제미널(代々木ゼミナール) 소유의 학원이 이전과 개축 과정에서 8년간 공백이 생기게 되자 5인의 건축가, 음악가, 인테리어디자이너, 요리사, 조경가가 협업하여 2011년 11월 매력적인 상업공간으로 재생시킨 사례이다. 음악 프로듀서인 고바야시 타게시(小林武史)가 인솔하는 그룹 Kurkku가 기획하고 도시디자인시스템(UDS)이 설계, 카타야마 마사이치(片山正通, Wonder wall, Inc)가 인테리어를 담당한 한정 프로젝트가 기획되었다. 오오자와(大沢伸一)와 고바야시(小林武史)가 공동 MP가 되어 건축, 조경, 인테리어는 물론 점포 선정까지 총지휘하였다.

주변의 하라주쿠(原宿)나 신주쿠(新宿)와는 달리 침체된 상권, 연장할 수 없는 임대 기간이라는 매우 제한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기획이 아닌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적극적 시도가 이루어진 점, 그런 데도 임시 프로젝트라는 속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한 점, 그러나 예술적 기지를 대담하고 독창적으로 펼친 점 등은 매우 인상적이며 고무적이다.

요요기 빌리지는 컨테이너의 기본 모듈인 20*40피트(feet) 모듈을 15개 배치한 컨테이너 존(Container-Zone)과 콘크리트와 유리를 주재료로 한 빌리지존(Village-Zone)으로 이루어진 2층 구조(연면적 1183.75㎡)로,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뮤직 바를 메인으로 베이커리, 커피숍, 서양 서적 중심의 서점, 리테일 스토어, 갤러리 등이 입지 되어 있는 녹지가 풍요로운 상업시설이다. 특히 컨테이너 존은 기존의 무미건조한 사각형 건축물 군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배치에 변화를 준 차별화 된 평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의 일상에서 떠날 수 있는 대탈출(Great Escape)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지의 1/2 이상을 조경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정원 설계를 담당한 니시하타 세이준(西畠清順)은 'Plant Hunter'로 자칭하며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 약초, 식충식물 그리고 거대한 대나무와 향나무 등을 식재하여 식물원과 같이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일상 공간이 아닌 독특한 공간임을, 그리고 향후 5배 정도의 성장이 가능함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 시간(Aging)에 대한 기대를 같이 부여하며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있다.

▶ 사진 2-18. Beach Garden 메인거리



▶ 사진 2-19. 할로윈 축제 개최



▶ 사진 2-20. 일요 마켓 이벤트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 '신기방기 놀이터'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박혜은 전임연구원



최근 지형의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특성과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 놀이터가 등장하면서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그네, 미끄럼틀 등 정형화된 시설물 중심의 놀이터와는 차별화 된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와 서울 '꿈틀꿈틀 놀이터', 그리고 서울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

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우선 순천 '기적의 놀이터'는 지형과 자연재료를 이용하여 조성된 공간으로 100여명의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놀이의 방법과 규칙을 어린이가 만들고 또한 그 과정 자체가 놀이가 된다. 어린이의 놀이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은 나무, 흙, 돌과 같은 자연소재이다.

▶ 사진 2-21. 완주군 비봉면 '신기방기 놀이터'



▶ 사진 2-22. '신기방기 놀이터' 주변 시설



서울 '꿈틀꿈틀 놀이터'는 '무장애통합'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놀이터로 장애의 유무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놀이터이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사업'은 기존의 낡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시설물 중심에서 활동중심으로 바꾼 것으로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놀이터이다. 고무칩 포장을 걷어내고 아이들의 인지발달에 좋은 모래, 흙, 목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호험심을 유발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 놀이공간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고 차별없이 모든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또한 놀이시설 위주가 아닌 놀이활동 중심 공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사진 2-23. '신기방기 놀이터' 외부 공간



▶ 사진 2-25. '신기방기 놀이터' 외부 공간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은 어떨까. 자연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는 어린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의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은 도시의 약 2배나 되고, 행복 지수는 대도시 지역에 비해 낮으며, 신체 활동, 심리 정서지원 및 문화체험 등 어린이 발달을 위한 지원이 부족해 어린이 스스로도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방과 후에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으로 안전한 보호공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농어촌 아동권리 상황분석, 세이브더칠드런).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사진 2-24. 방과 후 '신기방기 놀이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1) 전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국제 구호개발 NGO이며, 한국에서는 195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농어촌 놀이터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



▶ 사진 2-26. '신기방기 놀이터' 내부 공간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신기방기 놀이터'는 '2016 대한민국 공공 디자인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이다. 놀이공간의 심각한 부재를 겪고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게 놀이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로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¹⁾이 방과 후 방임 문제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놀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전국 읍·면 단위의 농어촌지역에 농어촌 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신기방기 놀이터’의 이름은 놀이터가 생길거라고 생각 못한 농어촌지역에 신기하게 놀이터가 생겨서 좋다는 의미로 비봉면 아이들이 지었다고 한다. 비봉면사무소와 비봉보건지소 바로 옆 부지에 조성된 ‘신기방기 놀이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지역의 거점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는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바로 옆에 있어 주민들의 자연감시가 가능하여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또한 정자, 운동기구, 농구골대 등이 함께 배치되어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 구분 없이 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하다. 면사무소 옆 골목으로 들어가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이 위치해 있어 아이들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위치이다.

놀이터에는 지붕을 활용하여 놀이가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 유아용 그네와 미끄럼틀, 목재로 된 의자와 벤치 등의 시설물이 있다. 놀이터 사용안내판에는 사용 안전수칙과 함께 놀이터 이용의 안전을 위해 비봉면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장소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건축물 지붕에는 그물망이나 줄, 홀더를 잡고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놀이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으며,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평평한 형태의 지붕으로 조성하여 아이들이 앉아서 놀 수도 있

도록 조성되어 있다. 또한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난간 역시 빼놓지 않고 있다.

건축물 내부는 약 15평 정도의 공간으로 주방시설과 화장실이 있고, 앉아서 놀 수 있는 의자 겸 수납공간, 원목 책상, 책, 보드게임 등이 있어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실내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놀이터를 방문했을 때 마침 실내에서는 아이들이 방과 후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놀이터에는 지역 주민이 상주하고 있어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 놀이터는 구상단계부터 아동위원과 성인위원 각 5명이 참여하였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되었다고 한다. 위원은 1년이며 매년 희망자에 의해 구성하기로 하였고 올해 7월에 새로 위원이 구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로 위원이 구성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놀이터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근 많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기방기 놀이터’의 경우 아동위원과 성인위원을 임명하여 놀이터 계획 시 참여뿐만 아니라, 1년간의 기간 동안 놀이터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 차별성을 갖는다.

▶ 사진 2-27. ‘신기방기 놀이터’ 내부 공간



▶ 사진 2-28. ‘신기방기 놀이터’ 안전수칙 안내판



▶ 사진 2-29. ‘신기방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지금은 ‘신기방기 놀이터’가 입소문이 나서 인근 마을 어린이도 이용하러 온다고 한다. 이 공간에 대해서 놀이터 관리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놀면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좋아졌고 아이들끼리 친밀감이 높아졌다고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지금까지 학교 또는 집에서 놀 수밖에 없었던 비봉면 아이들이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숙제하고 뛰어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놀이공간이 생긴 것이다. 도시에서는 어린이 놀이터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비봉면과 같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제는 농어촌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기방기 놀이터’가 시사해 주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위원과 성인위원을 구성하여 지역주민 모두가 운영에 참여하는 과정을 들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과 애착을 가지며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놀이터 관리 및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이 상주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일본에는 ‘플레이파크(Play Park)’ 또는 ‘모험 놀이터’라는 어린이 놀이공간이 있다. 물놀이, 흙놀이, 불놀이 등 아이들의 모험심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플레이 리더(Play Leader)’라는 어른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다소 위험하고 모험적인 놀이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어린이 놀이터에서 ‘안전성’과 ‘모험’은 상충관계에 있으면서도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이 상주하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은 매우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어린이를 위해 문화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시설의 이용과 접근이 용이한 도시지역과 다른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놀이환경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내 놀이공간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좁은 면적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내 놀이공간이 가능한 건축물의 외벽과 지붕을 이용하여 실외 놀이가 가능하도록 하여 좁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외 놀이 모두 가능하도록 조성한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신기방기 놀이터’는 개소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핀란드 대학교에서도 왔었다고 한다. ‘신기방기 놀이터’가 아이들과 어른 모두의 공간으로서 비봉면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여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붉은 언덕(홍현:紅峴)¹⁾ 위의 열린 공간, ‘북촌마을안내소’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_김성희 연구원



「2016 대한민국 국토경관디자인대전 대통령상」을 수상한 북촌마을안내소는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삼청동 거리로 이어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공공건축물에 인문학적 요소를 접목시켜 모든 사람이 편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공공건축물이라는 점과 설립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설득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극복하여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이곳은 낮은 창고 및 공중화장실과 35m 길이의 콘크리트 옹벽에 가려져 외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공간이었고, 북촌지역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기존 정독도서관 앞 안내소(16.74㎡ 규모)는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방문객들의

불편함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종로구청은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장실 및 편의시설이 있는 열린 공간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북촌의 난개발과 관광객만을 위한 공간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높았다. 주민과의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2012년에 설계공모 진행, 이를 시작으로 2년 7개월 동안 주민간담회, 부서장면담, 지역단체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을 설득하여 최종설계안을 확정했다. 이러한 과정 끝에 35m 옹벽을 걷어내어 화장실 및 창고 등을 정비하여 북촌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정독도서관과 서울교육박물관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터 제공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탄생되었다.

▶ 사진 2-30. 현황사진-화동고갯길에서 본 옹벽 전경



1) 홍현(紅峴) : 종로구 화동 22번지 정독도서관 남쪽에 붉은 색 흙으로 되어있는 고개, 붉은고개·붉은재라 하여 한자명으로 표기한데서 유래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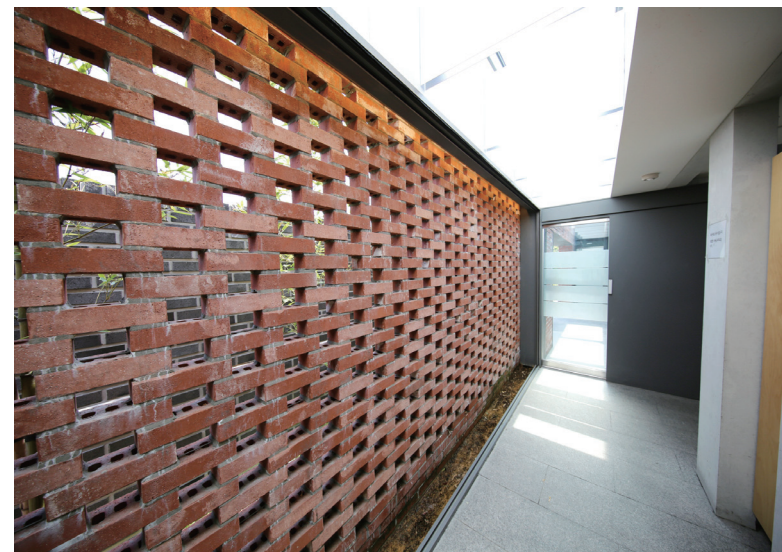
▶ 사진 2-31. 광장-서울교육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계단



▶ 사진 2-32. 광장-소공연 및 축제의 장소로 활용



▶ 사진 2-33. 공중화장실 외부



▶ 사진 2-34. 공중화장실 내부



늘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북촌마을안내소는 연면적 150.08㎡의 규모로 지하 1층에는 북촌전시실, 관광안내소, 엘리베이터, 지상 1층에는 공중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교육박물관에 쓰인 적벽돌을 북촌 전시실과 공중화장실 외관에 적용하였고, 관광안내소 외관에는 금속재료와 내부가 흰색 보이는 유리를 전면 적용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관광안내소와 공중화장실 사이에 돌계단을 놓아 이 건물들이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기존 건물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북촌마을 일대의 풍경과 매우 닮은 모습이다.



▶ 사진 2-35. 북촌전시실 외부



▶ 사진 2-36. 관광안내소 내부

주민과 꾸준한 소통으로 이루어진 결과

북촌마을안내소는 2016년 4월 개소 이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게 마당의 넓은 계단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소규모 공연을 하는 등 지역 축제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개소하기까지 주민과의 갈등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었던 공간을 끊임없는 소통으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단순한 관광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휴식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충청남도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다. 특히,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는 역사문화탐방 및 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여 북촌마을안내소와 같은 '관광정보+휴식+소통'의 기능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붉은 언덕(홍현:紅岾) 위의 열린 공간, '북촌마을안내소'



▶ 사진 2-37. 배치도-좌측부터 북촌전시실 / 북촌마을안내소 / 엘리베이터 / 공중화장실



▶ 사진 2-38. 관광안내소 외부

Level up

: 컨설팅 사례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영상관 건립공사 038
당진시

논산소방서 색채디자인 040
논산소방서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042
천안시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외광고물 디자인 044
충청남도

수촌초등학교 복도 색채 및 놀이공간 디자인 046
충청남도교육청

천안삼거리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048
충청남도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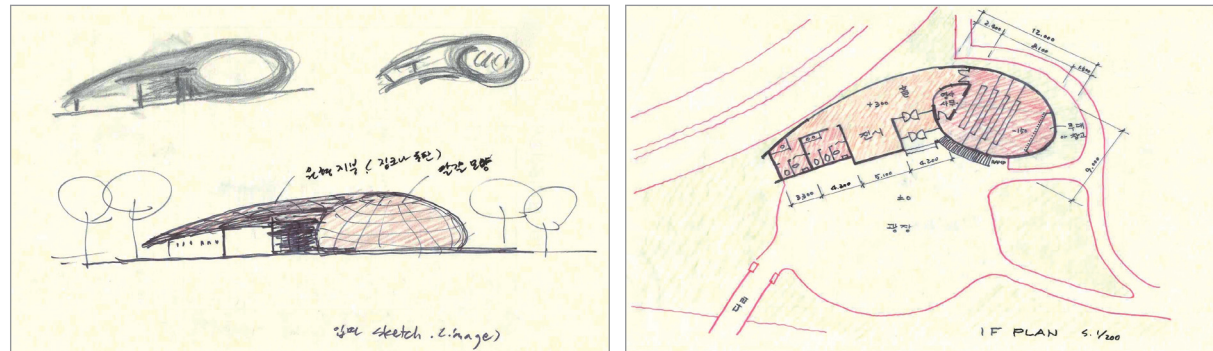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안전 3D 입체영상관 건립공사

- ▶ 사업유형 : 공공건축
- ▶ 신청기관 : 당진시 건축과
- ▶ 자문위원 : 정재훈 교수(한남대학교), 김연준 교수(목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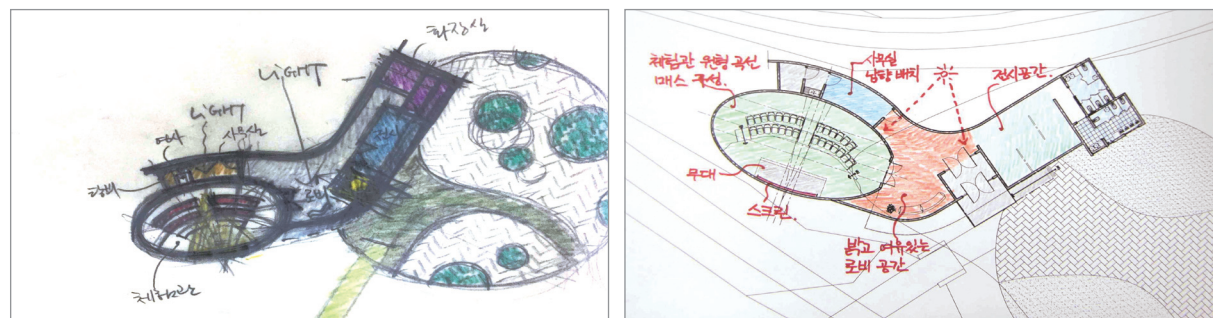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본 사업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3D 입체영상관 건립 사업으로 기본 구상단계에서 신청 되었음
- 계획대지는 건물(3D 입체영상관)이 들어 설 공간이 다소 협소한 상황으로 이를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함
- 기존 교통공원과 조화되는 배치 및 매스 계획, 주변 체육관 등 이용자에게도 보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함
- 계획대지에서 기존 광장을 유지하고 주변에 건물을 계획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현 계획안은 기능적이기는 하나 디자인이 너무 딱딱하여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부족함
- 어린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외관 및 내부 디자인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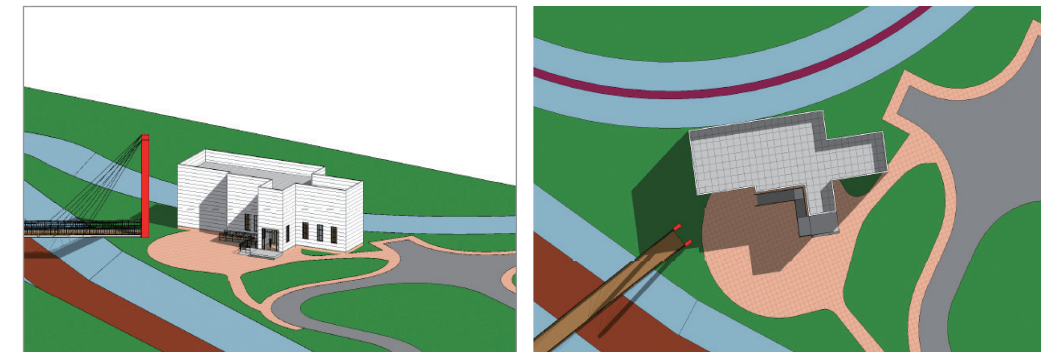
▶ 대안 1 입면 및 평면 구상도



▶ 대안 2 평면 구상도 및 도면



▶ 대상지 진입부 및 전경



▶ 당진시 계획안

컨설팅 주요 내용

■ 대안 1)

- 전시시설은 시각적인 전시보다 어린이 각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직접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더 효과적임
- 평당 공사비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규모가 작아서(연면적: 약 200㎡) 과감한 디자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딱딱한 이미지보다 어린이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외관 디자인을 제시함
-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내부 디자인 계획을 제시함

■ 대안 2)

- 직선과 곡선을 적절히 안배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매스감을 주도록 하였음
- 현관을 거쳐 진입하는 여유있는 로비 공간을 갖도록 하여 가장 주된 공간인 체험관까지 자연스럽게 동선을 유도 하고 남쪽으로 창을 두어 자연광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체험관의 경우는 타원형으로 구성하여 장변쪽으로 길게 2단 좌석을 배치하여 넓게 시청각 자료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를 위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계획, 스크린도 곡면을 이용한다면 입체적인 관람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논산소방서 색채디자인

- ▶ 사업유형 : 공공건축
- ▶ 신청기관 : 논산소방서
- ▶ 자문위원 : 박혜은 전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논산시 내동에 있는 공공건축물로서 대상지 주변은 건물 밀집지역이 아니며,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곳임
- 현재 소방서 건축물은 하얀색에 가까운高明도의 밝은 주조색과 YR계열의 보조색을 강조색으로 적용하고 있음
- 주변 건축물은 Y계열의高明도/저채도의 주조색, YR계열의 보조색, 논산시 대표색채인 GY계열 색채를 강조색으로 적용하고 있음
- 기존 계획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채계획은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논산시 기본경관 계획 색채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면적에 따른 색채방법 등을 고려하여 배색 방법과 색채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적용 후



▶ 기존 계획안 1



▶ 기존 계획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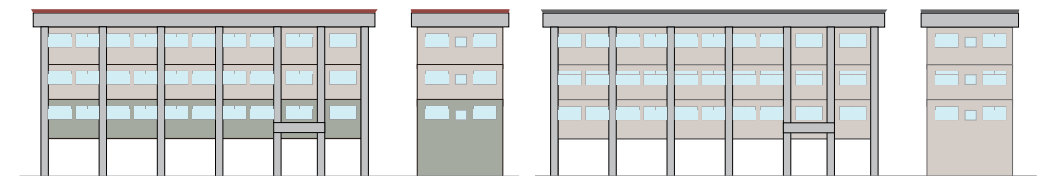
▶ 기존 계획안 3



▶ 기존 계획안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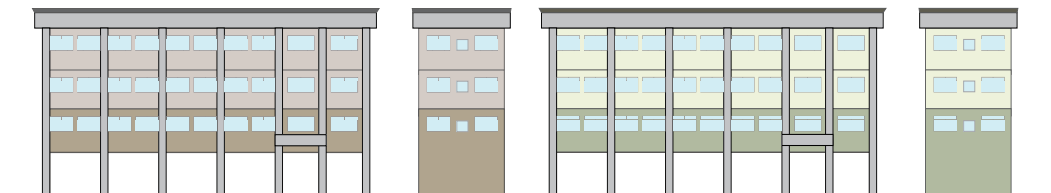
컨설팅 주요 내용

- 충청남도과 논산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권장 색채계획이면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채를 적용하여 무난하면서도 차별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색채배색을 제시함
- 논산시 대표색은 GY계열이며, 공공건축물 권장 주조색은 GY계열과 YR계열, 보조색은 GY계열과 G계열이므로, GY계열 및 YR계열의 색채배색을 제시함



▶ 시안 1

▶ 시안 2



▶ 시안 3

▶ 시안 4

녹색쌈지숲 조성공사

- ▶ 사업유형 : 공공공간
- ▶ 신청기관 : 천안시
- ▶ 자문위원 : 신지훈 교수(단국대학교), 박혜은 전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대상지는 천안시 구성동 하천 및 상가 건물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 관리가 부실한 상태임
- 대상지와 연결되는 도로변에는 메타세퀘이아가 식재되어 있으며 하천변은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어, 쌈지숲이 조성된다면 인근 주민 및 상가 방문객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됨
- 기존 설계안은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양쪽으로 메타세퀘이아를 열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부지 폭이 5m~6m이므로 생장속도가 빠른 메타세퀘이아를 양쪽으로 열식하기에는 폭이 좁고 식재 간격 조정이 필요함
- 휴식공간으로서 벤치 2개를 조성할 계획이나, 하천 산책로 및 상가 이용자 등 많은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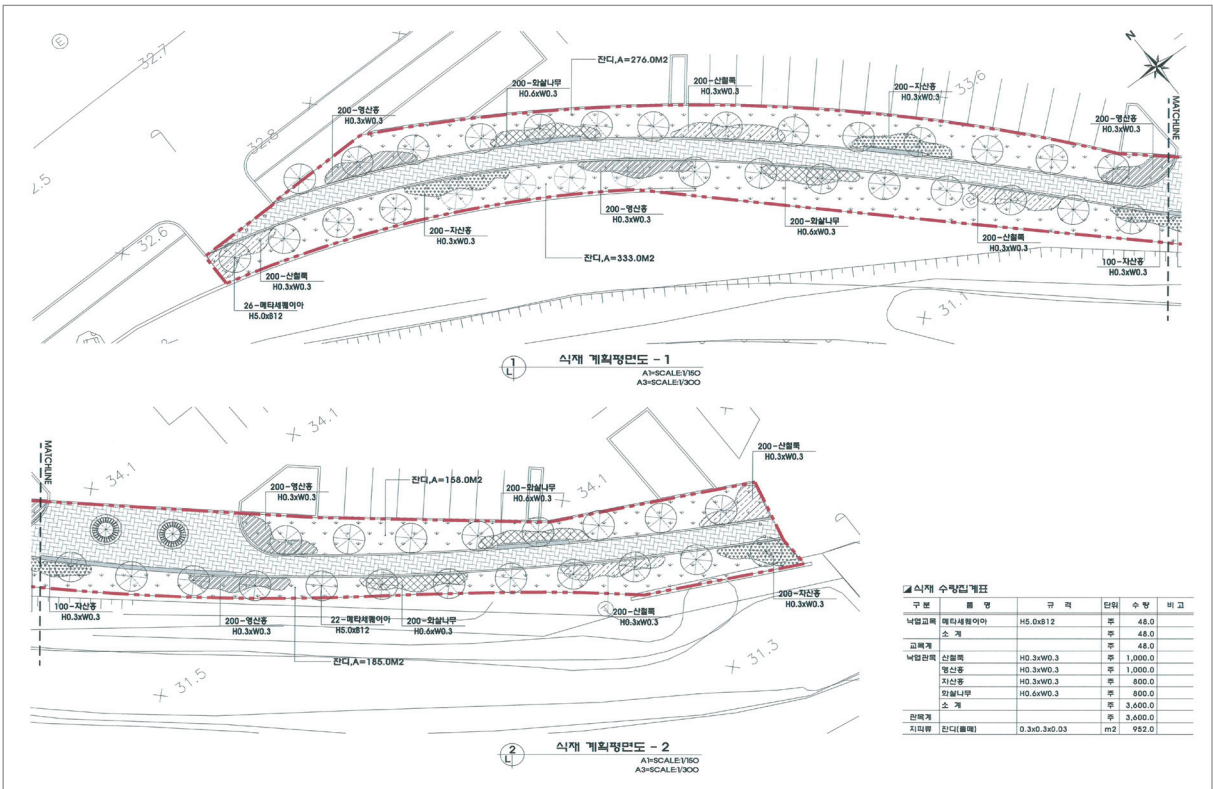
▶ 디자인 적용 후



▶ 디자인 적용 전

컨설팅 주요 내용

- 대상부지 형태를 고려하여 하천변에만 메타세퀘이아 식재하고, 상가 건물 주차장과 접해있는 펜스를 서양측백 등으로 차폐하거나 펜스대신 경계식재를 적용할 것을 권장함
- 대상지 중간지점의 벤치가 계획되어 있는 곳은 대상부지의 거점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바닥 포장의 패턴 차별화 또는 식재 하부에 벤치를 조성하여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함
- 휴식공간은 일정 장소에 집중 배치하기보다 선형의 부지를 활용하여 분산 배치할 것을 권장함



▶ 기존 설계안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옥외광고물 디자인

- ▶ 사업유형 : 공공매체
- ▶ 신청기관 : 충청남도
- ▶ 자문위원 : 오병찬 책임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내에 위치한 충청남도 적정기술 공유센터 신축에 따른 사인계획
자문으로 농업기술원에 진입하여 쉽게 적정기술센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인과 센터의 간판 등을 주변현황에 맞게 제시함
- 농업기술원의 사인정비계획과 세부 내용
 - 센터 간판은 센터건물의 정면과 측면에 각각 설치
 - 정문과 후문에 센터 명판 설치
 - 도로 이동 구간에 방향안내판 설치

▶ 디자인 적용 후



▶ 간판 및 안내판 배치계획



컨설팅 주요 내용

- 적정기술센터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넓은 부지안에 위치하고 출입은 정문과 후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내도 혹은 방향지시 안내판이 필요한 상황임
- 디자인은 총 세가지로 센터간판, 안내간판, 종합안내판을 제안함
- 센터간판은 두 가지 타입으로 1안은 채널형을 적용한 간판과 2안은 Flex간판으로 제안하였음
- 안내간판은 충청남도공공청사 사인시스템 표준매뉴얼을 이용하여 제안하며, 진입문의 위치에 따라 안내판에
같은 동선에 있는 주요 건물과 시설 등을 적정기술 공유센터와 같이 표기 하였음
- 종합안내도에 적정기술센터를 추가하여 기존 디자인에 맞추어 표기함



▶ 시안 1



▶ 시안 2



▶ 디자인 적용 후

수촌초등학교 복도 색채 및 놀이공간 디자인

- ▶ 사업유형 : 공공건축
- ▶ 신청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 자문위원 : 서동진 교수(상명대학교)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학교 내부 복도와 계단부의 도장은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있으며, 벽 부분에는 부식과 결로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색채 배색은 투 톤으로 차분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채도와 톤을 수정하여 학교의 규모에 맞는 배색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단부 공간은 매우 협소하므로 적절한 공간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계획, 안전 난간이 주는 삭막한 이미지를 디자인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디자인 적용 후



▶ 디자인 적용 전

컨설팅 주요 내용

- 수촌초등학교는 복도에 많은 건축요소가 있으므로 간결하고 정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통일성 있는 색채를 적용해야 함
- 전체 내부 색상 주조색은 밝은 파스텔 톤을 사용하여 밝고 온화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고, 보조색은 같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여 톤을 다운시켜 차분하게 적용함
- 벽체의 색상은 차분하게 통일하고 학년에 따라 기둥에 강조색을 적용하여 포인트를 주고, 계단실 놀이공간은 가벽과 가구에 포인트를 주고자 함



▶ 시안 1. 놀이공간 인테리어 디자인



▶ 시안 2. 복도 내부 색채

천안삼거리초등학교 내부 색채디자인

- ▶ 사업유형 : 공공건축
- ▶ 신청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 자문위원 : 김성희 연구원(충남공공디자인센터)

컨설팅 신청 및 사전 분석

-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친화적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천안삼거리초등학교 본관 및 후동 교사 내부 색채 디자인 컨설팅임
- 현재 초등학교 이미지가 결여된 색채와 고채도의 벽화 및 기존 가구와 창틀, 문 등 색채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음
- 기존 계획안은 각 층별로 강조색을 주었으나, 중채도 · 고명도의 색채를 적용하여 대체적으로 다운된 분위기를 조성하여 초등학교의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음

▶ 디자인 적용 후



▶ 디자인 적용전

컨설팅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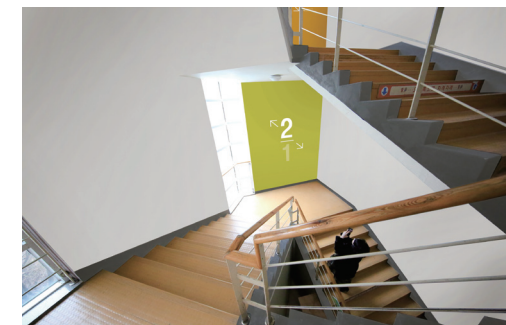
- 건축물의 이미지에 맞는 배색을 선택하고, 통일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함
-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색채를 기본으로 다양한 강조색을 적용하여 재미있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함
- 각 층에 따른 강조색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의 인지성과 위치성을 높이도록 계획함



▶ 시안 1. 1학년 교실



▶ 시안 2. 식당



▶ 시안 3. 계단실



▶ 시안 4. 공용공간

Team

: 논산시

공공디자인이 이끄는 연산역의 행복한 변화 052

논산시 도시주택과_문태훈 팀장

Team : 논산시

공공디자인이 이끄는 연산역의 행복한 변화

논산시 도시주택과_문태훈 팀장



100년 전 연산역에는 물이 풍부하고 석탄을 많이 저장해두고 있어 증기기관차가 반드시 정차해야 했다. 그만큼 연산역은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많은 사람들로 활기가 있었다. 그러나 증기기관차가 전기기관차로 바뀌고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연산역의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 이후 상권이 쇠퇴하고 많은 사람이 연산을 떠났다. 연산 주민들은 연산역의 역사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았다.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쳐 연산역을 살리기 위해 연산역의 심장이, 희망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다.

▶ 사진 3-1. 연산역 옛 풍경



▶ 그림 3-1. 연산역 공공디자인 적용 구상안

공공디자인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행복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논산시 '추억과 소통하는 고향역 행복디자인' 사업이 이를 잘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논산시와 코레일, 지역주민은 침체된 연산역과 그 인근을 되살리겠다는 절박한 신념을 공유했고 그 일환으로 코레일이 논산시에 새마을호 4량을 무상 임대했다.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 만들기' 공모사업에 응모, 31개 지방자치단체의 치열한 경합을 뚫고 논산시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연산의 주인은 연산 주민이라는 인식에서 모든 사업 계획과 디자인 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연산역 발전을 위한 회의와 워크숍 외에도 수많은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과의 피드백하는 과정들이 사업의 구성을 탄탄하게 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기관 시니어 클럽의 고령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은 사업에 가치를 더해주었다.



▶ 사진 3-2. 랫츠 컨퍼런스 진행모습

▶ 그림 3-2. 객차 내부 조성 예



본 사업은 문화예술-역사-놀이의 조화로운 시너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성과가 달려 있다. 우선 새마을호 4량에 대한 객차별 구성은 1호 차는 연산역과 체험관에 대한 안내 존으로, 휴식과 함께 연산의 이야기와 지역자원을 소개한다. 2호 차는 기차의 종류와 원리를 체험을 통해 알아보고, 책과 영상으로 탐구해보는 공간이며 3~4호 차는 어린이 특화 시설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추가사업 제안으로 급수탑 주위에 급수탑 원리를 적용한 아이들의 놀이 체험 공간 조성, 철길을 가로지르는 낙후된 육교를 보수해 포토 존으로 조성, 장미터널 속 주민 작품 갤러리 조성 등 지역 자원 하나하나를 창의적으로 연결하여 역사 인근을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이다.

▶ 그림 3-3. 객차 내부 조성 예



문화해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산역에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문화공간을 조성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 활력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간이 어른들은 옛 모습을 추억하고 아이들은 역사를 느끼는 세대 간 공감대 형성, 단발성 행사의 한계를 극복한 많은 체험·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 역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Focus

: 센터 정책연구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058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060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062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농촌 주거환경의 문제로 도시에 비해 열악한 주거 인프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과소화마을 증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농촌이 처한 경제적 여건, 인구·가구 변화를 볼 때 자생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 이에 농촌주거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좋지 않아 농촌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도시보다 낮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촌주거환경 관련사업의 중장기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 관련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환경 관련사업은 크게 주택단위사업, 마을단위사업, 지역단위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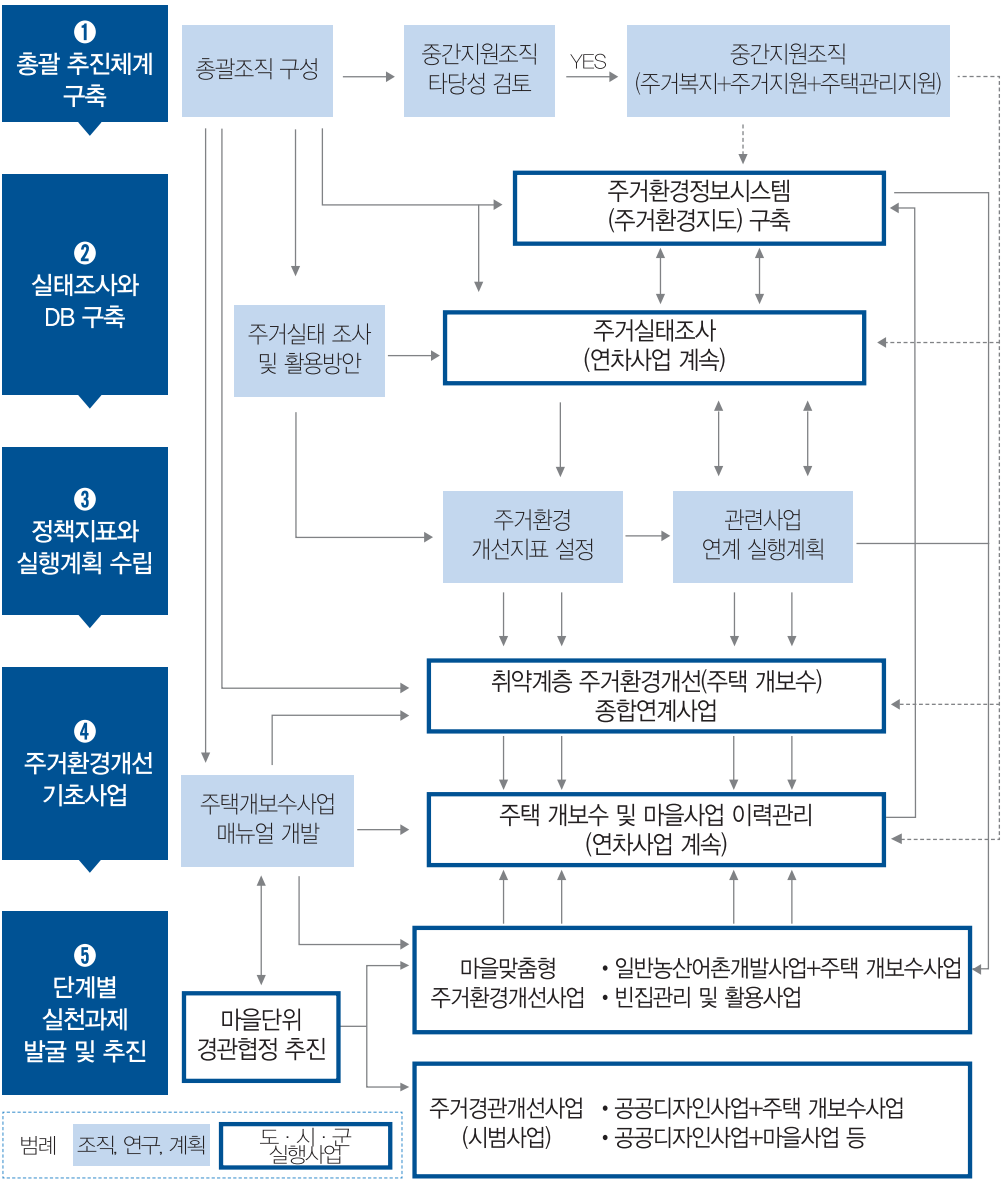
▶ 충남 농촌주거환경 관련사업의 유형과 추진방식

유형	사업명	사업추진 근거	
		지원 및 사업범위 설정 근거	유형
주택단위 사업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소득
	슬레이트 처리지원	-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주택상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 신청자	적합여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마을단위 사업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	- 차상위계층 이하	소득
	친환경에너지 희망마을 조성	- 마을단위 신청 및 평가	평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사업계획서 공모	공모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 마을단위 신청 및 평가	평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계획
지역단위 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계획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 도시가스 공급계획	계획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사업계획서 공모	도 공모
	도량살리기 운동	- 사업계획서 공모	도 공모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 수도정비기본계획	계획
농산어촌 개발사업	하수관거정비	-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계획
	생태하천복원	- 사업신청내역 검토	평가
	소하천정비	- 소하천정비 중기계획	계획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 사업계획서 공모	공모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 새뜰마을사업 공모	도 공모
농산어촌 개발사업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공모	공모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 사업계획서 공모	공모
	마을단위 경관생태조성사업	- 사업계획서 공모	공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 생활환경정비계획	계획
	정주환경개선사업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

충남 주거현황 및 사업 분석, 인터뷰, 사례 분석, 자문회의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요 실천과제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주요 과제와 과제 간 연계, 추진 과정을 제안하였다. 실천과제는 조직, 연구, 계획 등 사전준비 성격의 과제와 이에 근거한 실행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하드웨어 사업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여 주민과 공동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이 결여되어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실천과제 추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충남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로드맵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최근 ‘여성, 소수자 인권’이 화두가 되면서 ‘여성친화’,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충남 역시 현재 7개의 시·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도시 공간 인프라 문제를 성 평등 추진과 연계된 문제로 확장시켜 인식하여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대부분이 H/W중심의 단위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되고 있거나 또는 기존 사업과 동일한 내용과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남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론고찰 및 국내외 선진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친화도시의 개념 정립, 충남 여성친화도 현황 분석을 통하여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제시, 이를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사업 여성친화 적용 요소 및 추진사업을 제시하였다.

▶ 공공디자인사업 여성친화 적용 요소

영역(중요도, %)	세부항목(우선순위)	필수	권장	고려
1영역 법과 제도적 기반 (13.3%)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 제도적 시스템 정비 구축	1.1 성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제도			●
	1.2 공무원 성 평등 교육 실시	●		
	1.3 여성친화도시(양성평등) 중장기계획 수립	●		
	1.4 성 주류화 전담부서 설치			●
	1.5 성인지 예산 수립			●
	1.6 성별 통계 작성			●
	1.7 시·군 공공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1.8 성 평등 의식조사 실시			●
2영역 정치 및 의사결정 여성 참여 (11.8%) : 전문가, 행정가, 시민단체로서 여성이 도시정책에 참여 가능한 여건 조성	2.1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		
	2.2 예산수립 시 여성 의견 반영		●	
	2.3 여성시민단체(NGO) 육성		●	
	2.4 관련 위원회 특정 성별 60% 미만 구성	●		
	2.5 여성공무원 고용 및 승진 증진			●
	2.6 시·군 여성공무원 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			●
	2.7 여성위원회 구성			●
3영역 경제활동 (16.1%)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	3.1 영유아 돌봄지원 공간 조성 및 개선	●		
	3.2 육아휴직 증진			●
	3.3 노약자 돌봄지원 공간 조성 및 개선	●		
	3.4 돌봄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		
	3.5 장애인 돌봄지원 공간 조성 및 개선	●		
	3.6 여성 경력개발 교육 증진			●
	3.7 여성 일자리 재교육 지원 및 창업지원			●

영역(중요도, %)	세부항목(우선순위)	필수	권장	고려
4영역 안전 (14.4%) : 범죄 및 사고 예방, 무장해 디자인 적용으로 도시 안전성 향상	3.8 여성 전문직종 참여 지원			●
	3.9 가족친화인증 확대 및 육성		●	
	3.10 시·군 기업내(간) 직종별 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
	4.1 공간 및 시설에 무장해 디자인 적용	●		
	4.2 긴급전화 및 비상벨, CCTV설치	●		
	4.3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		
	4.4 조명, 가로등 설치 및 개선	●		
5영역 공간계획 (12.5%) : 도시서비스 형평성 추구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조성	4.5 도시안전지도 작성	●		
	4.6 여성의 안전 역량 강화		●	
	4.7 경찰서 내 여성전담 부서 설치		●	
	5.1 소생활권내 편의시설 확보 * 병원, 공원, 주차장, 화장실 등	●		
	5.2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확보, 개선 * 커뮤니티센터(여성센터 포함), 교육기관, 문화시설 등	●		
	5.3 대중교통 활용 활성화 * 접근성 및 편의성, 안전성, 제도 정비 등	●		
	5.4 공간이용의 성별요구 및 특성 반영	●		
6영역 복지 및 건강 (12.2%) : 빈곤대책, 생태적 균형 유지 및 건강관리 서비스 향상	6.1 한부모 가정 및 장애 여성 대상 주거 지원	●		
	6.2 건강증진 교육 프로그램 실시			●
	6.3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마련			●
	6.4 여성 전문병원 확충 * 산부인과 및 전문의 수, 산후조리원 수, 거점공간 내 전문병원 분포 등	●		
	6.5 다문화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펀드 조성			●

▶ 충남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영역 및 방향

추진전략별 사업 영역		주요사업 방향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기반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 및 계획, 프로세스 등 시스템 구축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 및 모니터링
여성친화공간 및 공동체 조성	일터와 생활공간에서의 여성을 배려, 성 평등한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성 및 지원	지원센터 설립
		공동체 지원 사업
		여성친화공간 모델 개발
		여성배려공간 조성
안전·돌봄	도시 및 공공시설, 주거와 보행환경에서의 여성·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시 안전망 구축
		범죄예방 모델사업
		돌봄 및 안전공간 구축
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공간·공공매체	모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환경 구축	보행접근성 향상
		무장해 디자인
		가족친화공간 조성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옥외광고산업의 규모와 광고의 형태 및 종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산업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기존 옥외광고물 정책의 한계와 시장의 수요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광고물 도입과 자유표시구역 실시 등 법·제도가 대폭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제도에 대한 이해, 옥외광고물에 관한 동향 등 전문가들의 검토와 지역 상황을 분석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시·도 및 시·군·구 옥외광고물 조례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 제작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 옥외광고물 법·제도

구분	명칭	내용
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한 제한 성격의 기본적인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치 광고물의 집행 또는 관리에 대한 관리법의 하위 규정
조례	• 옥외광고물 시·도 조례 • 옥외광고물 시·군·구 조례	각 시·도, 시·군·구 별로 적용되는 시행령에 따른 관리조례

▶ 옥외광고물법 신설 및 변경사항

내용	현행	개정안
신설		디지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변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로형간판	벽면이용 간판
	세로형 간판	
보완		위반에 대한 조치, 안전관리 강화

▶ 조례개정을 위한 가로유형별 옥외광고물 적용방안

지역구분 조례위임사항		강 화		↔		완 화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상업지역 · 공업지역			
				유형3		유형2	
일반적 표시방법	입간판의 설치방법	금지		허용			
	총수량	2개 이하	3개 이하(최고 4개 이하)				
	영제12조	총수량에서 제외사항	제외사항 없음		－ 도로의 굽은지점 － 건물뒷면을 면한 도로		－ 도로의 굽은지점 － 건물뒷면을 면한 도로 － 입간판
전기사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네온류 사용금지지역	금지 (유네스코지정,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허용			
	빛의밝기	500cd 이하	1000cd 이하	1500cd 이하		2000cd 이하	
	영제14조	색깔	제한없음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	금지		시간당 20/100			
옥상간판 표시방법	허용 최저층수	금지		제한	－ 시(4층 이상 15층 이하) － 군(3층 이상 15층 이하)		
	수평거리	금지		제한	50m	제한없음	
영제15조	가림간판, 볼링핀 모형	금지		제한	허용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건물 부지안	금지		제한	허용		
	건물 부지밖	금지		제한	허용		
	영제16조	전자 게시대 설치지역	금지		허용		
	전자 게시대간 수평거리	금지		200m 이상	100m 이상	50m 이상	

국내 정책·제도 동향

디자인 정책 및 연구 동향 066

중앙부처 074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089

디자인 정책 및 연구 동향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최근 중앙부처 및 충남 디자인 정책 트렌드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 동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디자인 정책 및 사업 발굴 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건축 및 도시, 경관 및 공공공간, 마을만들기,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2017년 중앙부처 및 충남의 추진 정책과 사업 동향을 알아보고 주요 키워드를 도출했다. 도출된 키워드 중에서 중앙부처 및 충남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 10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연구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분야별 중앙부처 및 충남 디자인 정책 주요 키워드 도출

10개의 핵심 키워드 선정

10개 핵심 키워드 관련 최근 5년간 연구 검색

핵심 키워드 관련 키워드 도출

분야별 중앙부처 및 충남 디자인 정책 주요 키워드

• 건축 및 도시분야

건축물 안전, 공공건축, 도시재생 등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에서는 친환경도시, 임대주택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충남에서는 범죄예방, 여성친화도시, 건강도시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와 조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경관 및 공공공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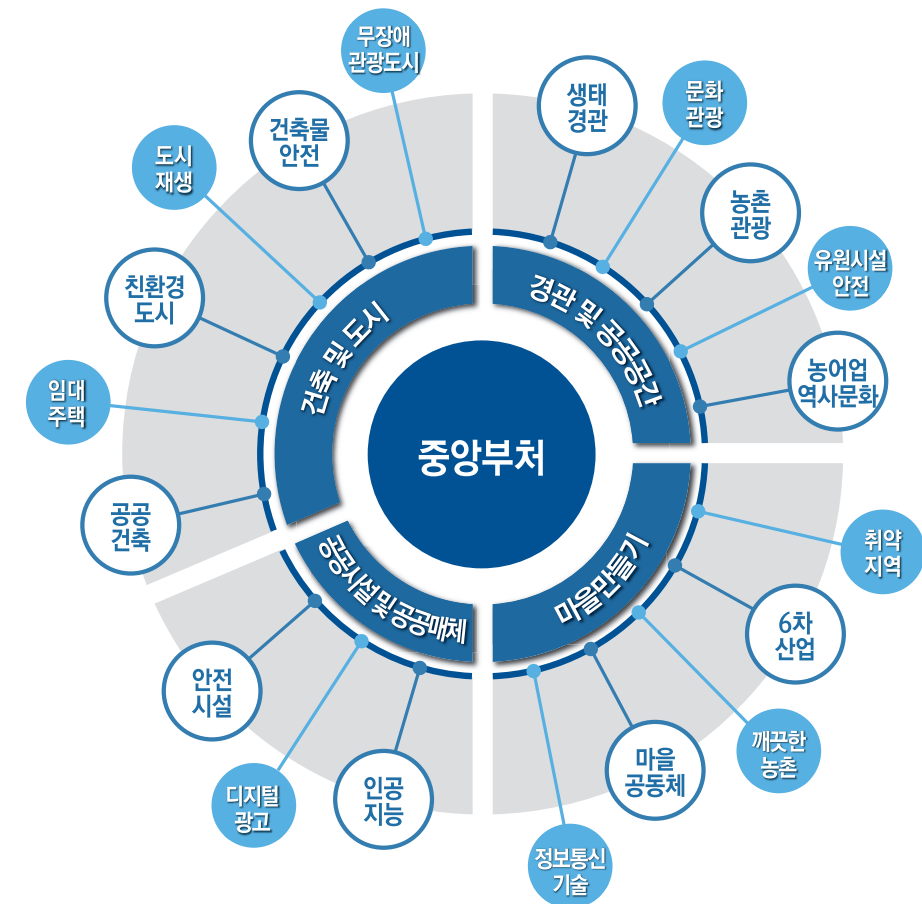
생태경관, 농촌관광, 농어업역사문화와 관련한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에서는 유원시설 안전과 문화관광, 충남에서는 보행안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며 역시 조금 다른 동향을 보이고 있다.

• 마을만들기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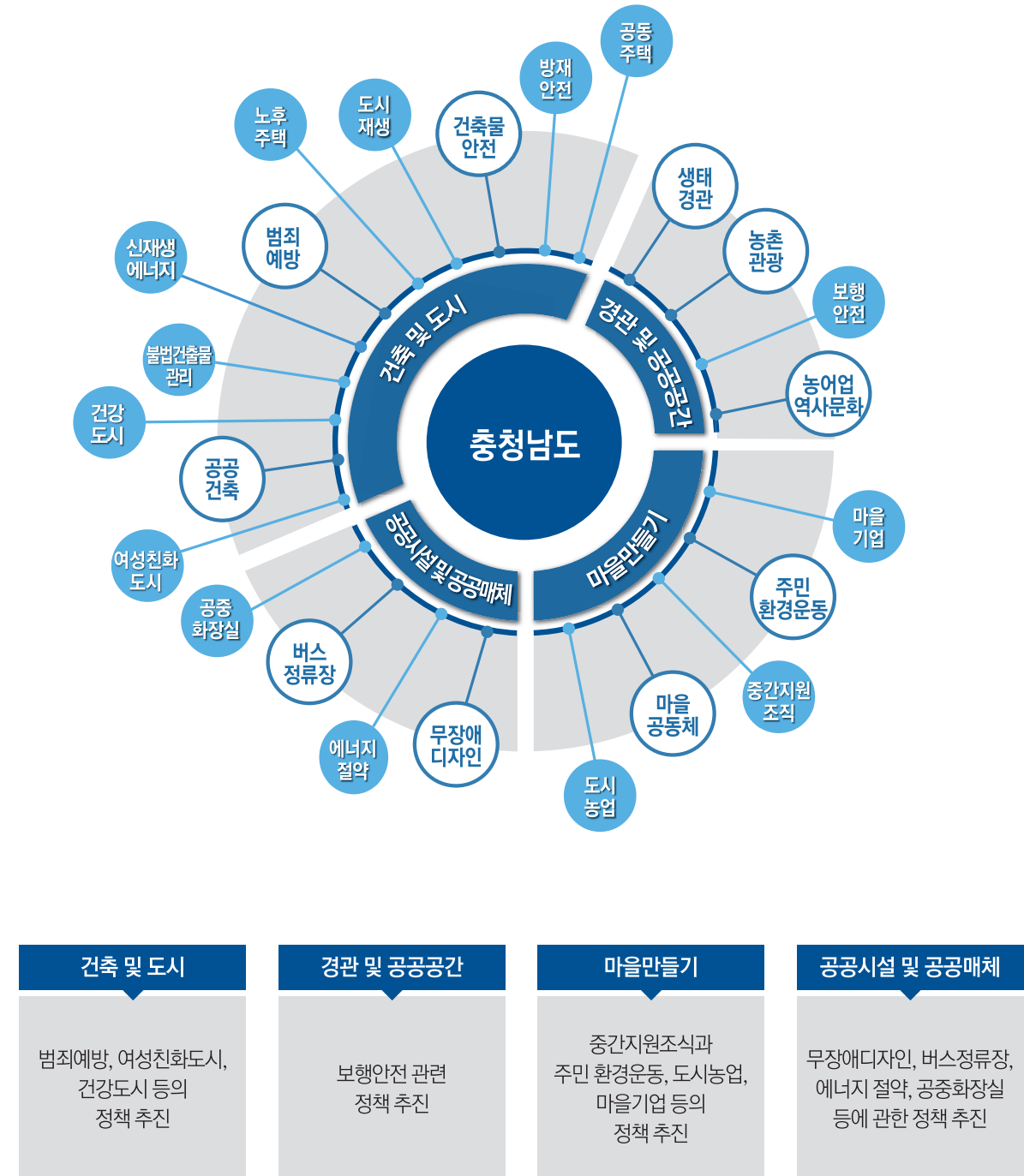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이 이슈화되고 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마을공동체와 더불어 6차산업,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 깨끗한 농촌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 충남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주민 환경운동, 도시농업, 마을기업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 분야

중앙부처와 충남에서 추진되는 정책이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부처에서는 안전시설과 인공지능, 디지털 광고에 관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무장애디자인, 버스정류장, 에너지 절약,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 및 도시	경관 및 공공공간	마을만들기	공공시설 및 공공매체
친환경도시, 임대주택 등의 정책 추진	유원시설 안전과 문화관광 관련 정책 추진	마을공동체 및 6차산업, 취약지역, 정보통신기술, 깨끗한 농촌 등의 정책 추진	안전시설과 인공지능, 디지털 광고에 관한 정책 추진



10개 핵심 키워드 및 관련 연구 키워드

분야별 중앙부처 및 충남 디자인 정책 주요 키워드 중 핵심 키워드 10개, 건축물 안전, 범죄예방, 공공건축, 생태경관, 농어업 역사문화, 농촌관광, 주민 환경운동, 마을공동체, 무장애디자인, 버스정류장을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 키워드를 제시하였다.

건축물 안전 관련 연구 검색 결과 성능위주 설계,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 안전점검, 고층건축물, 재난관리, 대피공간 등의 키워드가 많았으며, 이 외에도 재난, 안전관리의무, 마감재료, 화재 예방관리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안전규제, 공법적 개입, 사회적 규제, 안전점검, 안전관리 의무, 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구조물 모니터링, 고층 건축물, 재난관리체계, 실내건축, 안전사고, 마감 건물건설 재료, 시설물 설치기준, 건물 건설, 대피안전, 대 피 시뮬레이션, 스카이 스크래퍼, 대피공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간, 엘리베이터형 피난기구, 코일 스프링, 하향식 사다리, 시설물안전관리 성능위주 설계 시설물 설치기준 법, 원자력 발전시설물, 원자력안전법, 일반법, 특별법,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 정밀점검보고서, 복합건축물, 재난, 위험성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 안전사고 평가, 방재성능,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 성능위주설계 기준, 사회적규제 건축물 안전 위험성 평가 시방기준, 중복규정, 기준의 통합관리 및 운영, 공사중단 방 고층건축물 안전점검 재난 화재 예방 관리, 화재 예방 서브 행정대집행, 보조금, 화재 안전, 승강기문 재난관리 대피공간 교 사원, 화재 위험, 점검표, 현장 조사, 비고 조사, 목조 문화재, 불 재안전진단, 도시화재, 동향조사, 성능위주설 마감재료 안전관리의무 계, 초고층 특별법, 피난안전구역, 승강기문, 방화유리, 개구부, 연소확대, 내화성능 화재 예방관리

범죄예방 관련 연구 키워드는 마을만들기, 안전, 디자인, CCTV, 범죄예방환경설계, 범죄예방활동 등이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근린공원, 지역사회특성, 물리적 환경, 자연적 감시, 커뮤니티디자인 등 다양한 키워드도 제시되고 있음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범죄예방, 범죄수사, 데이터과학, 개인정보,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 보안등, 순찰, 가시도, CCTV, 안전 마을 만들기 사업, 생활안전, 범죄예방안전, 재난안전, 주민만족, 안심마을 시범사업, CPTED 인식, 범죄두려움, 수원시 송죽동, 성폭력범죄, 보안처분, 재범방지, 사회복귀, 복지, 근린공원 고령사회, 고령화 문제, 노인범죄, 발달이론, 아노미, 성폭력범죄, 전문직간 협력활동,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범죄예방환경설계, 마을벽화사업, 유동인구, 범죄율, 노후아파트 지역사회특성 마을만들기, 학교범죄, 범죄 안전성, 공공디자인, 행정정책, 다문화, 갈등, 물리적 환경 CCTV 다문화사회 다문화교육, 입법, 폐쇄적 공간, 환경 디자인 요소, 범죄억제, 파출소, 생활안전 마을만들기 안전 경찰, 4대 사회악, 체감안전도, 경 찰 활동 만족도, 범죄의 두려움, 야간조명 범죄예방 디자인 만들기 디자인가이드라인,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5대범죄, 범죄취약 지도, 지역사회 범죄예방, 야간 범죄예방환경설계 빅데이터 조명, 안전, 시계열 분석, 범죄억제, 절도, 염리동 소금길, 도시 이미지, 범죄예방활동 자연적 감시 미디어 재현, 범죄예방환경설계 매뉴얼, 범죄예방 설계요소, 건축도시계획 커뮤니티디자인 건조환경 요소, 셉테드 적용요소, 다문화사회, 외국인범죄 다발지역, 외국인 자살방법대, 범죄억제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이주여성, 계절별 범죄예방효과, 일상활동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주 택환경, 주택유형, 범죄, 회귀분석, 3D시뮬레이션, 아동범죄예방, 자연적 감시, 골목길, 가이드라인, 지하철 범죄, 지하철 역사공간, 제3세대 셉테드, 디자인 전략, 주거, 노후아파트, 물리적 환경, 기 개발 아파트단지, 안전지대, 방법활동, 안전취약지대, 도시재생

공공건축과 관련해서는 디자인, 한옥, 서비스, 관리 및 운영 등의 키워드가 많았으며, 이 외에도 녹색건축, 도시재생, 공공도서관, 지원센터, 공공성 등의 키워드도 제시되고 있음

커뮤니티 참여 디자인 프로세스, 공공성, 공공건축, 자산관리, 프레임워크, 서비스수준, 유지관리, 공사비 산정방법, 공사규모, 도시재생, 정체성, 장소성, 복원, 보전 및 재사용, 한국 공공건축물, 한국 현황, 공공건축물 운영 및 관리, 공공청사, 공공청사 계획, 저탄소 녹색건축, 공사규모 기준, 시설기능 및 면적기준, 공공청사 계획업무 체크리스트, 녹색건축, 공공성 디자인 한옥 자산관리, 너지성능, 발주제도, 설계공모, 건축설계, 건축서비스, 조달,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건축, 복합용도 건물, 한국형 공공건축물, 계획유 도시재생 공공건축 서비스, 형, 디자인특성, 신한옥형, 유형 분류, 구성요소, 활성화, 디자인트렌드, 경제성 분석, 지열에너지, 생애 주기비용, 공공건물, 활용가치, 관리정 책, 공공자산, 전략계획,, 탄소 저감, 저탄소, 기획 요소, 옥상녹화, 비 옥상녹화, 지원센터 발주제도, 복합적용, 효율상승, 디자인 기준, 건설 공정, 공공건물 서비스 관리, 소규모 공공건축물, 건축디 효율상승 자인 평가 및 향상 지표, 디자인 분류체계, 세부디자인지표,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시범적용, 지원센터, 운영방안

생태경관 관련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생태복원, 하천, 경관지수, 생물다양성 키워드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경관생태학, 자연자원, 서식처, 식생, 가치평가, 중요도 만족도, 기후변화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생태 네트워크, 다중버퍼생성 방법, 경관지수, 가로정원, 커뮤니티 가든, 천일염, 생태문화자원, 증도, 신의도, 황룡, 다양화, 경관, 생태지리학, 개발, 전략, 갯벌, 해식애, 비치, 사구, 간척, 환경, 조경 평가, 조경 복원, 백두 대간, 생태능선, 풍경 형용사, 진단 평가, 생태학적 품질, 생태 복원, 경관 분야, 후지산 무등 국립 공원, 가동치, 서식처, 저감, 교란, 관리, 생태관광, 농촌관광, 식물상 분석, 농촌마을, 생태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자연 생태계서비스 자원, 섬, 전라남도, 경영 계획, 협업 관리, 우선순위, 위협요소, 경영 효율성, 하천 식생 하천생태계 가치평가 생태계, 생태계서비스, 지표, 가치추정, 환경가치종합정보시스템, 통합 접근법, 국립 공원, 버려진 들판, 2차 승계, 경관 변화, 습지 중요도 만족도 하천 생태복원 관리, 유역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계획, 복원 계획, 친수공간 지역주민 생태경관 경관지수 간, 속성, 선택실험법, 한계지불 의사액, 전주천, 이용자 특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계획 성, 중요도 만족도, 하천관리, 조류서식지, 유형분류, 서식 생태 경관생태학 자연자원 서식처 처 파편화, 새섬매자기, 희귀식물, 특산식물, 특정식물, 귀화 경관보전지역 자연경관 식물, 생태 복원 목표, 조경 구조, 환경 자산, 생태 차이, 토양 물, 생태 서비스 가치 추정, 통합방법론, 자연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자연환경보전 기본방 하천평가 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지역 개발계획, 지역주민, 탐방객, 전문가, 생태도시브랜드, 매력성, 정체성, 이미지, 중요도 만족도 분석, 하천회랑, 진단적 평가방법, 수변원충녹지대, 하천복원, 하천보전, 자연경관, 가시권, 질적 경관평가, 노출량, 탐방시기, 기후변화, 경관생태학, 생태계 관리, 지구 온난화, 섬 생태계, 식생, 풍경 생태 대책, 도시 산림, 경관 및 생태계 분석, 고급 유지 관리, 서울특별시, 담습지, 기능평가, 가치평가, 상원산,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형경관자원, 스토리텔링, 도시구조, 연결, 경관생태학, 결합, 하천평가, 도시 하천, 하천기능, 기능배분, 사회교환이론, 지역주민 인지도, 산악농촌, 지역주민의 참여, 지역개발

농어업 역사문화 관련 연구 검색 결과 전통마을숲, 문화경관,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산관광,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농어업 경관 등의 키워드가 많았으며, 생물다양성, 해양문화, 문화콘텐츠, 보전과 관리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농산채, 보호지역, 전통마을숲, 축적동, 제사유적, 당산지, 한국 농촌경관, 지리산 둘레길, 농촌마을 활력 제고, 시골마을, 진전마을, 표, 조형물, 문화경관, 등재기준, 세계유산, 농업유산, 생물다양성 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시스템, 무형 해양문화 농경문화유산 유산, 식량안정성, 생물다양성, 생업기술, 농업문화, 사회제도, 경관관리, 세계농업 유산, 농업, 농촌유산, 농업유산 유지, 보전, 평가, 제주도, 해양문화, 해 전통마을숲 농업경관생태 민, 탐라, 지역 지정, 경관, 보전과 관리, 핵심지역, 주변지역, 세 문화경관 세계중요농업유산 계중요농업유산, 농촌경관, 농업경관, 유산관광, 제주 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문 당산제 농어업 역사문화 유산관광 화적 상징성, 해양관광 콘텐츠, 해양관광객, 어 촌마을,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중요농어업유산 구들장 논 초가장, 진정성, 당산숲, 문화콘텐츠, 농촌경관보전, 농업경관생 보전과 관리 농어업 경관 태, 농어업경관, 경관특성요소, 한국농어업유산, 세계중요농어업유산, 중 요도 만족도, 청산도, 구들장논, 계단식 논, 관개, 배수, 수리시설, 수리체계, 농경문화 문화콘텐츠 청산도 유산, 글로벌문화콘텐츠, 당산숲, 농업경관생태 보전지역, 농어업유산, 에코뮤지엄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만족도, 6차산업, 서비스, 농촌체험, 선택속성, 재방문, 행동의도 등의 키워드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농촌유산, 체험 프로그램, 지속가능한 관광, 융합관광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귀농귀촌, 전원생활, 친환경생활, 농촌정책지원, 영농능계, 여가문화생활, 공정여행, 소비자 효과성 지각, 구매환경, 산업융합, 융합관광, 마을만들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구술사, 증언 구술, 가시리마을, 목축문화, 제주조랑말체험공원, 융합이론, 생태문화관광, 6차산업화, 지속가능한 관광, 농촌유산, 대안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의료관광, 농촌어메니티지원, 모바일엔, 농촌관광엔, 관광만족도, U-tourism, 기술수용모형,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교육효과, 인적자원, IPA분석, 사회정치적 제어능력, 공동체 의식, 정책참여, 사회회환이론, 전수조사, 비
 농촌유산
 모수통계, 농촌관광개발지지, 삶의 질 인식, 지역주민, 농촌 체험 프로그램, 속성, 농촌관광 만족도, 행동 의도, 체류형 관광, 제주 한달살기, 심층면접, 내용분석, 경영역
 재방문 행동의도
 체험프로그램, 숙박시설
 동기, 대인적 상호작용, 서비스접점, 산업연관모형, 경제적 파급효과, 농촌
 체류관광, 재 방문, 관광 프로그램, 클러스터 분석, 외국인 관광객, 시
 장 세분화, 로하스 농촌관광, 농산 융합관광
 물, 품질 인증, 숙박시설, 선호체험할
 동기, 군집분석, 중국인 관광객, 음식 관광, 차유관광, 서비스 품질, 지각된
 가치, 체험, 몰입, 고객만족, 사후행동, 방문중요속성 세분화, 농촌관광행
 동의도, 군집분석, 민박, 선택속성, 농촌관광 목적지,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
 법, 관광지 마케팅 전문가, 전통지식, 생물 다양성, 생태계서비스, 지역농특산물, 선택
 속성, 충성도, 농촌체험, 선택속성, 관광동기, 재 방문 의도, 농촌관광개발, 그린투어리즘, 의사결
 정 참여, 심리적 소유권, 농촌관광 개발 및 사업 지원, 농촌 관광 마을 공약, 그린 빌리지, 중간지원조직, 기초 이론, 합천 마을, 아
 리 랜드, 라이프 사이클, 포지셔닝 방법, 이미지, 공보산구조모형, 농촌 전통시장, 관광상품성, 방문객 만족, 지역충성도, 섬관광
 어메니티, 계층적의사결정방법론, 평가요인, 고유성, 심미성,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 관광개발 성과, 녹색농촌체험마을, 6차산
 업, 선택속성, 체험프로그램 선호도, 지지도, 농어촌관광, 농어촌체험마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
 에 관한 법률

주민 환경운동 관련 연구에서는 상향식 개발, 주민참여, 공동체, 거버넌스, 지역생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키워드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지역주민, 커뮤니티, 주민 역량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집단행동프레임, 사회운동, 운동 프레임, 카운트 프레임, 군포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 새마을운동, 상향식 개발, 공동체의식,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운동 추진체계, 에너지 전환, 지역공동체,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시민성, 성대골, 해방적 파국, 탈바꿈,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도시 주민 역량 생태공동체, 공동체 형성 요인분석, 산남동 두꺼비 생태마을 사례, 지역성, 공동체, 은행나무어린아이도서관, 참여, 협동, 주민 참여형 자연 자원 관리, 지역생태지식, 거버넌스, 새마을운동 지역주민 상향식 하향식 제도 발전, 운곡습지,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주민, 상향식 개발 거버넌스 브랜드화, 한강,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샛강 관리, 물환경, 이용활성화, 주민참여, 사회조사방법론, 주민협의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평가협의회, 주거환경관리사업, 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리봉, PF사업 방식, 정책 참여의도, 계획된 행동이 협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리봉, PF사업론, 환경수도 정책, 도시재생, 주민배제, 주민 역량, 정부의 유연성,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 활성화, AHP, 친환경 패러다임, 환경인식, 지속가능한 관광에 공동체 활성화 대한 태도, 도보관광, 자원봉사활동, 환경축제, 인과관계, 만족도, 충성도, 영향요인, 주민참여 민화천모니터링, 오염원지도, 주민참여형 유역관리방안, 로컬 거버넌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커뮤니티 만들기, 네트워크, 커뮤니티 가든, 디자인 기획, 박탈된 도시 지역, 심리적 및 사회적 영향, 정원문화, 자생적 도심주거지, 공공 사적 공간, 커뮤니티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에서는 공동체 활동, 중간지원조직, 주민참여, 사회자본, 마을공동체 사업, 마을만들기 등의 키워드가 많았으며, 도시공동체, 주민역량, 공동체, 공동체마을 등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역량교육,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인지도,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성북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분석,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집합행위의 분석, 제도분석틀, 정책평가, 사회자본, 마을, 마을살이, 주민주도, 마을지향행정, 마을인프라, 마을넷, 거버넌스,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사회활동 참여, 탈물질주의, 권위주의, 정치이념, 주민자치, 주민역량, 민관 거버넌스, 도시재생,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 인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마을공동체성, 주민조직, 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 시스템, 공간기반 공동체마을 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실천공동체, 공유가치창출, 공공가치창출, 역량강화, 역량개발, 지역공동체마을, 지역역량, 어촌마을, 상호신뢰와 협력, 커뮤니티비즈니스, 관광커뮤니티비즈니스 도시공동체 공동체 활동 스, 어메니티자원, 지속가능한 경영, 정부정책, 마을효과, 이웃호 중간지원조직 주민참여 네트워크 과, 집합적 효용성, 소셜 뉴로사이언스, 모둠살이, 마을, 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자본 성미산 마을공동체, 성공요인, 도공동체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 만족도 어업피해, 공동체 규제, 공동체 정신, 마을만족, 마을 문화 체육 행사, 시민 참여 마을만들기 주민역량 여, 시민참여 만족, 귀농, 농촌마을, 대안운동, 참여만족도, 자발적 공동체, 위계적 회 귀분석,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주민참여적 혹은 주민주도적 지역발전,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어촌 공동체 사업, 지역 활성화, 장수마을, 공공미술, 지역재생, 마을미술 프로젝트, 장소 특정적 예술, 근린생활권 계획, 공동체 파트너십, 공적 파트너십, 사회경제, 중심지 활성화, 농어촌중심지, 러브지역, 활동이론, 확장학습, 활동체계, 자생적 도시마을공동체, 학습경험, 공유공간, 거주자참여, 소규모 계획공동체, 세계유산, 화성, 남한산성, 지역공동체, 사회연결망, 귀촌, 공동체마을, 계획과정, 코디네이터, 어촌 고령화, 갈등 관리, 지속가능, 귀촌형 공동체마을, 평가도구, 적응성, 도시공동체, 친밀성, 공공성, 협동조합, 위르겐 하버마스, 니콜라스 루만, 꾸러미공동체, 대안성, 지속가능성, 수용성, 특화, 공동체, 빈곤, 이웃관계, 토박이, 복지, 나눔, 커뮤니티 웰빙, 성미산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형성

무장애디자인과 관련한 키워드는 배리어프리인증, 유니버설디자인이 많았으며, 그 외에 고령화 사회, 교통 취약, 공공공간, 소외계층, 개인가치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디자인, 고령 사회인시시스템 교통 취약 화 사회, 환경디자인속성, 주택개조, 저소득 노인 주택, 도시 지역 고령화 사회 배리어프리인증 역, 주택 복지, 교통 취약, 접근 가능한 보행자 신호, 무주택 개조 무장애디자인 주택 복지 장애공원, 배리어프리 인증, 소외계층, 공공공간, 사인시 시스템, 융복합, 지체장애인, 개인가치, 심리적 임파워먼트, 사회 환경디자인속성 유니버설디자인 회적 자원, 관광활동 공공공간 소외계층 개인가치

버스정류장은 버스 노선도, 정보 시스템, 정보디자인이 관련 키워드로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외에 디지털미디어, 대중교통, 안전디자인, 보행취약자 등의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음

안전디자인, 안전디자인 영역, 서울역의 안전디자인, 고속버스터미널역의 안전디자인, 버스 배차간격, 승객대기시간, 대기시간 가치, 교통카드 데이터, 알고리즘 개발, 서울시 버스 디지털미디어 스체계, 시간거리 접근성, 빅 데이터, 교통카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최단경로 이동시간, 버스 버스 노선도 스텝근성 공간구조, 정보디자인, 시내버스 노선도, 시내버스 전체노선도, 시내버스 정보 디자인 대기시간 가치 류장노선도, 글꼴, 글꼴크기, 버스 노선도, 버스 시스템, 대중교통, 인간 정보디자인 버스정류장 중심 디자인, 서울, 사물인터넷, 공개 데이터, 보행취약자, 버스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보행취약자 정보 시스템, 안드로이드 응용 프로그램, 보행네트워크, 대중교통 접근 버스 배차간격 정보 시스템 성, 서울시 다가구 다세대 주택, 디지털미디어, 버스정류장의 변화, 버스정류장 요소, 안전디자인 디지털미디어 요소, 지하철, 정보안내체계, 대중교통환승, 반성적 인지

중앙부처 정책 · 제도 동향

■ 국민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어 2017. 05. 16. | 국토교통부 | 건축문화경관과

우리나라 국토경관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수립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관법 10주년이 되는 5월 17일(수)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연령대, 성별, 사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국민대표 4인이 경관헌장을 낭독하는 헌장 선포식, 지난 경관헌장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작 18점에 대한 시상식, 경관헌장 제정위원 33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자치단체장의 축하영상 전달 등이 진행되었다. 국토부는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국민토론회, 페이스북 의견 수렴, 공모전 등 다양한 방안으로 준비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경관헌장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차원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헌장을 경관 포털과 SNS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

국토를 가치있게, 국민을 행복하게, 미래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산과 강, 바다와 섬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토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정신과 문화의 뿌리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고유한 역사를 가진 마을과 도시를 형성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국토 경관을 만들어 왔다.

국토 경관은 모두가 잘 지키고 발전시켜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우리는 지난 경제 성장 과정에서 경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에 국토 경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널리 알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경관을 추구한다.
우리는 경관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전하여 활용한다.
우리는 주민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경관을 가꾼다.

우리는 국토 경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산한다.
우리는 국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 경관을 세계에 알린다.

이상에서 밝힌 다짐을 실천하여 국민에게는 행복을,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을 주는 품격 있는 대한민국 국토 경관을 만들어 나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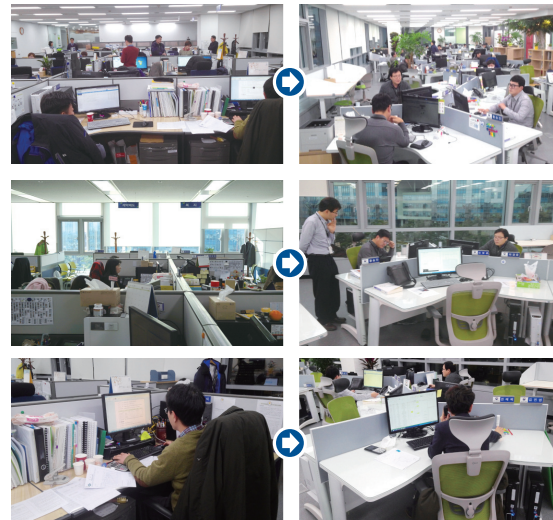
2017년 5월 17일

건축 및 도시

■ 정부청사, 공간혁신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 2017. 01. 02. | 행정자치부 | 청사기획디자인과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세종청사 3동 4층을 스마트오피스로 새롭게 구축하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스마트오피스는 기존 정부청사 사무실의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 수평적인 사무환경을 갖춘 사무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무실이 갖고 있던 부서 간 벽을 없애 개방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직급의 구분이 없는 책상 배치로 과장·팀장들도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도록 해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용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집중공간을 제공하고, 창측에 높낮이 책상 등을 추가 배치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업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사무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기존에는 없었던 직원휴게실과 다목적 소통 공간, 회의실 등을 별도 구축하였다. 이로 인해 직원 복지 및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직원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재창출되었다.

〈스마트오피스 구축 전·후 사진〉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출입구〉



〈다목적 소통공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 01. 03.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가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허용,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②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 간소화,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개선, ④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 개선 등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개선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1일 시행 2017. 01. 03.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1월 1일(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② 사고가 빈번한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 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③ 기타 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이다.

■ 전국 건축·도시분야 온라인 정보서비스 개시 2017. 01. 09.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전국 단위 건축·도시 관련 법정계획과 정책사업 정보를 '아우름(AURUM)' 웹 및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동시 서비스를 한다. 이번에 개발한 '법정계획'과 '정책사업' 서비스는 건축·도시 분야의 법정계획 및 정책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수집·재가공한 것으로 전국의 건축·도시 관련 법정계획 및 정부 정책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초의 서비스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지금까지 자산정보, 정책동향정보, 연구정보 등 다양한 공공분야 빅데이터를 발굴하여 구축 및 제공해 왔으며, 이번에 개발한 법정계획과 정책사업 서비스는 관련 분야 실무자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2017. 01. 10.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물류시설정보과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10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단지 내 건축물에 물류, 첨단산업, 상업, 주거 등 다양한 시설의 융·복합 가능), ② 화장실급·배수 설비 소음 저감 기준 마련(바닥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및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 ③ 공업화 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 기준만 적용

(경량충격음 58dB 및 중량충격음 50dB 이하를 만족할 것), ④ 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 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활성화와 화장실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무장애 관광도시’ 업무협약 체결

2017. 01. 12. |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평창조직위원회,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정선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17년 1월 11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창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의 ‘접근성(accessibility)’ 기준에 따른 대회시설(경기장, 숙박, 선수촌, 수송) 준비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시설이 아닌 개최도시(강릉 · 평창 · 정선)의 민간시설(일반음식점, 숙박시설, 관광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신속 · 새 단장된 민간시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과 ‘투어 강원 앱’ 등을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또한 조직위는 관람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고, 외국의 무장애 관광 사이트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 방안 마련

2017. 02. 02.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축법령을 2월 4일(토)에 개정 ·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

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 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진 대비 건축물 대응력 제고 :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 ② 설계 · 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시행, ③ 기타 개정사항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2호점 신규 개소

2017. 03. 14.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들이 예술창작활동 시간 중에도 부담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예술인 시간제 자녀돌봄센터’ 2호점 문을 열었다.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돌봄센터는 마포구의 ‘예봄센터’이며, 개소식은 3월 14일(화) 오전 11시에 열렸다. 돌봄센터는 주말 · 야간에도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보육시설과 달리 주말과 야간에도 시간제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있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이들이 예술창작활동에 안정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여성 예술인들이 겪는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도 공공체육시설 건립 지원 대상 선정

2017. 04. 04.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인 국민체육센터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의 건립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건립 공모사업에는 총 11곳의 지방자치단체와 31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사업 계획에 대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가 최종 지원 대상지를 선정했다. 국민체육센터는 도시 · 농촌 간에 차별

없는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초 시 · 군 · 구당 1개소를 지원하는 일반형과 광역 시 · 도당 1개소를 지원하는 장애인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지원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중구와 전라남도 함평군이고, 장애인형 지원 대상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선정되었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은 학교 부지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근린형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중 · 대도시형과 소도시 · 농촌형(인구 30만 명 기준)으로 구분된다. 중 · 대도시형 지원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고 외 9곳이 선정되었고, 소도시 · 농촌형 지원 대상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고 외 8곳이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 신규 건립 지원 이외에도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여건과 경기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개 · 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133개소를 선정하여 총 27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지원 사업 선정 결과〉		
중 · 대 도시형 지원 대상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고 / 서대문구 홍은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초 / 사하구 건국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여고 / 중구 동문초, 울산광역시 여천초, 강원도 원주시 신림초, 전라북도 익산시 이리삼성초, 제주도 제주시 어도초	
소도시 · 농촌형 지원 대상지	경기도 가평군 가평고, 강원도 평창군 상지대 관령고 / 황성군 우천초, 충청북도 옥천군 군남초,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여고 / 예산군 덕산중,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초, 경상남도 하동군 목계초, 제주도 제주시 법환초	

사이즈코리아, 디자인과 융합으로 사업화 지원 확대

2017. 04. 06. | 산업통상자원부 | 화학서비스표준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7년 4월 6일 국가기술표준원 회의실에서 한국인 인체치수 정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이즈코리아센터」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설치 · 운영하기로 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업계, 연구계 등에 인체치수와 디자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신속한 제품개발과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인체치수가 활용되는 모든 산업분야에 인체 친화적 제품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향후 인체치수정보가 적용된 디자인 컨셉 및 시제품의 사용성 시험을 위한 가상현실(VR)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

기술표준원은 상반기 중에 공간 새단장과 측정 장비 등의 구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對)기업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

2017. 04. 10.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사업추진 프로세스(안)〉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발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발굴	지자체 → 지원센터
	▼	
코디네이팅	사업구조 설계	지원센터 (LH)
	▼	
재무 구조화	자금조달 구조 설계	지원센터 (HUG)
	▼	
기금지원 사전검토	도시계정 지원여부 사전 검토	자문위원회
	▼	
사업추진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사업시행	지자체, 민간, 기금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고려학, 공동화되는 우리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이 힘을 모으는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 도시경제 지원센터’의 출범식을 4월 10일(월)에 개최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국토부 · 공공기관 · 학계 · 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도시 분야 사업 · 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하는 정책자문 기구이다.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총괄하며 LH는 사업 지원을 HUG는 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발굴, 관리,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 · 민간에 대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도시재생특별법(13.12월) 및 주택도시기금법(15.7월) 시행 이후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최초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 청주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민간참여 사업이다. LH와 HUG는 각각 2017년 4월 말까지 전국 11개 지역본부(LH) 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 ·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 · 민간사업자 대상 사업 발굴 · 금융상담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 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2017. 04. 12. | 국토교통부 | 뉴스테이정책과, 주거복지 기획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1월 17일 (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2일(수)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 가능한 공간)별 임대 등록 가능 :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②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기준 조정 : 2개 이상 공동주택 용지가 포함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조정함, ③ 기업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 소음 · 악취 · 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허용, ④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 신고 절차 마련 : 지자체장에게 임차인 모집 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신고 받은 임차인 모집계획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 · 시행될 예정이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 2,000㎡이상 업무 · 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2017. 05. 25. | 행정자치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자치부는 5월 26일(금) 바닥면적 2,000㎡ 이상인 사무실 등의 업무시설과 상가건물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때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안의 주요 내용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며,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대수선 또는 증축)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이 고속도로 휴게소, 역, 공항 등 도로교통시설에서 문화 ·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무시설까지 확대되었다.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가 적용되는 신규 건축물〉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업무시설	3,000㎡이상	2,000㎡이상	대상 확대
업무시설+근린시설	2,000㎡이상	2,000㎡이상	현행 유지
근린시설	미적용	2,000㎡이상	대상 확대
의료 · 교육시설, 문화 · 집회시설, 노유자 · 수련시설	2,000㎡이상	1,000㎡이상	대상 확대

경관 및 공공공간

■ 한국을 대표하는 100개의 관광지, 2017년~2018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 2017. 01. 09.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정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100선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선정해 발표했다.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한국관광 100선'은 2년에 한 번씩 지역의 대표관광지 100곳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곳은 ① 누구나 아는 한국 대표관광지 : 한라산, 5대 고궁, 한국 민속촌, 단양 팔경, 울릉도 · 독도 등, ②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한국관광 : 명동, 홍대, 이태원, 인사동, 감천문화마을 등을 비롯해 롯데월드, 에버랜드, 비발디파크 · 오션월드, 제주 에코랜드 테마파크, 서울랜드 등, ③ 문화예술 공연 한국관광 : 광장시장, 대인예술시장, 정남진 토요일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④ 생태 한국 관광 : 북한산, 경북 금강송 숲길, 평창 대관령, 삼척 대이리 동굴지대, 태안 안면도, 속초 해변, 청산도 등이 선정되었다. 관광지 선정은 인지도 · 만족도, 방문 의향 등 온라인 설문조사, 통신사 · 소셜 · 내비게이션 자료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관광 통계 분석 및 전문가의 서면 · 현장평가도 병행하여 모든 결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 대한민국 최초 '농어업 역사 · 문화 · 전시체험관' 건립

2017. 01. 24.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2020년 '농어업 역사 · 문화 · 전시체험관'을 개관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어업 체험관은 농어업 역사와 미래기술 공유를 통해 농어업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도시민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문화플랫폼으로서, 연간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농어업의 소중함과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과 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건립 규모는 사업 부지 5만㎡, 건축연면적 1만 8천㎡(지하1층, 지상2층)이며, 사업비는 약 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건립 일정은 2018년~2019년 설계에 근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시험가동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개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건립 지역은 화서역 · 수원역 역세권 지역이고 42번 국도와 접하고 있어 입지성과 교통 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수원 화성 및 행궁 등의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할 경우 도심 속에서 즐기는 통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 통로 · 안전지대 설치해 안전성 높인다.

2017. 01. 24. | 국토교통부 | 도로운영과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의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휴게소 주차장은 차로와 분리된 보행공간이 없고, 차량 진 · 출입 관련 안전시설도 부족하여 보행 안전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휴게소 주차장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8개 휴게소에 시범 적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분석, 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휴게소 안전관리 지침'을 새로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① 차량 진입로와 주차구역 분리, ② 주차구역에는 보행통로, 횡단보도, 보행 안전지대 설치, ③ 주차가능 공간을 표시하는 주차유도 안내시스템 도입, 보행구역은 선명한 색상으로 도색, ④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휴게소 진 · 출입 동선 체계 개선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 등 14개의 기존 휴게소와 공사 중인 서울양양고속도로 4개의 신설 휴게소에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대형차 · 소형차 주차구역 분리〉



〈입체형 교통섬〉

■ '계절별 농촌관광코스' 선정

2017. 02. 2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추운 겨울, 농촌의 자연 환경 속에서 과일과 겨울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겨울 수확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 그리고 농촌관광지를 거닐며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농촌관광코스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명소, 축제, 문화예술 체험, 안보관광지, 온천, 전망대, 동굴, 테마 · 예술공원, 목장, 전시관, 역사유적지, 관광수산시장, 박물관, 맛집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이번 농촌관광코스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가 협업을 통해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자원(관광지, 체험휴양마을, 박물관, 지역명소 등)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겨울 수확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9선'에 선정된 코스로 경기도는 별내마을 등 4명소, 강원도는 학마을 · 지계마을 등 4명소, 충청북도는 영동금강모치마을 등 6명소, 충청남도는 딸기마을 등 6명소, 전라북도는 구름호수마을 · 우리밀마을 등 5명소, 전라남도는 백학동마을 등 5명소, 경상북도는 개실마을 등 6명소, 경상남도는 삼거동농촌체험휴양마을 등 2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지마을 등 6명소의 총 9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봄향기 느끼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으로 경기도는 잣향기푸른마을, 강원도는 하도

문섬채마을, 충청북도논서안민들레생태마을, 충청남도논서산별마을, 전라북도논서원연장마을 · 황금마을, 전라남도논서담양도래수마을, 경상북도논서금대마을, 경상남도논서둔덕시골체험마을 · 연담체험휴양마을, 제주특별자치도논서가시리마을과 화순리마을 등 총 10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향후 계절별 · 월별로 관광테마를 선정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위의 관광자원도 포함한 농촌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정 코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농촌관광 포털 농촌여행의 모든 것(웰촌, 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017. 03. 02. | 행정자치부 | 생활공간정책과

2018년부터 안전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범주에 포함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페달보조방식, ②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③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 등이며, 안전의식이 취약하고 조작이 미숙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도록 보호자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전기자전거를 개조하거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제재방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자동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올해 안에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 및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등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도 「자전거법」 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및 「전기자전거 자율안전확인기준」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중랑천 홍수에 안전한 생태친수공간으로 거듭 난다

2017. 03. 05. | 국토교통부 | 하천운영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 경기도는 중랑천을 홍수에 안전하고 생태환경이 우수한 도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3월 6일(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 · 서울시 · 경기도 3개 기관이 관리하고, 총 연장 35km(국가하천 21km, 지방하천 14km)로 형성되어 있는 중랑천의 '홍수 방지, 생태 하천 복원 계획'의 재검토 · 보완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홍수에 안전하고

친수 · 생태 · 수변경관이 어우러지는 중랑천 홍수방지 · 생태복원 종합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 · 서울시 · 경기도는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비용분담(국토부 60%, 서울시 30%, 경기도 10%)하여 발주하였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① 기 수립된 중랑천 홍수방어계획의 전면 재검토, ②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친환경 하천관리 기본계획 구상, ③ 하천 · 도로사업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수립이다. 국토교통부 · 서울시 · 경기도는 중랑천 홍수방지 및 생태복원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중랑천 유역이 홍수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서울 · 경기 상 · 하류 간 일관성 있는 생태하천 조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안전한 국토종주 자전거길, 국민과 함께 만든다

2017. 03. 29. | 행정자치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자치부는 3월 2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을 갖고 4월부터 영산강 · 섬진강 · 낙동강 등 3개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길의 불편사항을 발굴 ·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자전거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가운데 추천을 통해 4개팀이 선정되었다. '현장점검 투어단'은 3일~4일 일정으로 각각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자전거길을 직접 자전거로

달리면서 자전거길 및 안전시설 파손여부, 무인인증센터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자전거길 이용 시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 보유대수 천만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본격 시동

2017. 04. 04.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 시장에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원예 전문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스마트원예단지'는 기존에 운영되던 노후재배시설을 폐쇄하고, 일정 장소로 이전되거나 곡물생산이 이루어지는 지역 및 간척지 등 부지에 신규로 조성될 예정이며, 단지 내부에는 스마트팜,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생산시설과 함께 산지유통센터(APC), 가공시설, 홍보판매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될 예정이다. '스마트원예단지'는 약 4년에 걸쳐 조성, 6월 중 공모로 최종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17~18)을 통해 단지의 기틀을 다지고, 시설조성 완료 이후 2021년부터 스마트원예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생산 농산물은 국내수급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출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가 향후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시설원예 농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영비용 감소 및 농가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부산에 기록문화 테마공원 ‘실록의 숲’ 조성한다

2017. 04. 06. | 행정자치부 | 부산기록관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태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주요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있는 부산기록관 주변 숲 약 125,000㎡를 기록문화 테마공원 ‘실록의 숲’으로 조성한다. 그 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부산기록관 주변 숲에는 조선왕조 시대 한양에서 경북 봉화 태백산사고까지를 이르는 실록 봉안길, 실록표지 염색에 사용된 쪽 · 황벽 등 화초와 나무를 소개하는 기록문화 정원, 한지 제조와 염색 등의 기록문화 체험교실, 실록 봉안의식을 재현할 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될 3개년 사업으로, 관련학계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기록유산이자 유네스코에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실록을 주제로 한 최초의 기록문화공원이 조성되면, 범국민적 기록문화 확산은 물론, 부산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사고 잦던 졸음쉼터 진 · 출입로 길이 늘려 안전해진다

2017. 05. 31. | 국토교통부 | 도로국 도로운영과,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 · 시행한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설치장소) 고속도로에서 휴게시설 간격이 25km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하여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 · 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 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 ② (진출입로)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 · 출입로 길이를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감속차로 190m → 215m, 가속차로 220 → 370m), ③ (규모)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하여 규모 확대,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 추가 설치, ④ (편의시설)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및 조명시설 설치, ⑤ (안전시설)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 · 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컬러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 추가 설치, ⑥ (유지관리) 화장실, 휴식공간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도록 졸음쉼터 내 화장실 등에 대한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한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으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제정된 지침에 맞추어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졸음쉼터 개선 개념도〉

마을만들기

■ 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만족도 높아

2017. 01. 12.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물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하에 2016년 4월~11월까지 도입 · 운영된 ‘2015년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창조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본 사업은 농촌 지역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농촌의 교육, 의료, 복지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창조마을 조성을 위한 실증사업이다. 서비스 운영 실태 및 미진한 부분을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성과분석 결과, 사업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4.2점(5점 만점)이며, 마을 주민들의 생활 및 소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태안 갈두천권역 : 7개 행정리의 관광자원이 흩어져 있는 단점 보완을 위해 비콘을 활용한마을관광안내 · 안전모니터링시스템 도입(방문객 수 약20% 증가), ② 완주 인덕두레마을 : 마을 고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 원격건강관리 · 마을방송시스템 도입(만족도 평균 15% 향상, 월 평균 진료 횟수 1.5회→2.5회 증가), ③합천가야권역 :체험, 숙박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관광 · 캠핑장예약 · 안전모니터링시스템 도입(만족도 평균 19% 향상), ④ 문경 오미자권역 : 오미자 생산량 증대와 서리피해 방지를 위해 서리피해방지시스템 및 과수노지 스마트팜 도입(오미자 생산량 및 특상품 증대(각 30%, 15%)), ⑤ 강원 평창팜 : 저장 농산물 관리를

위한 저온창고모니터링시스템 도입(2016년 낙뢰에 의한 정전피해가 5회 발생하였으나 즉각적인 대처로 농산물 피해를 예방), ⑥ 강진 녹향월촌권역 : 체험관광 활성화 및 주민 복지 개선을 위해 마을관광안내 · 관광객안전 모니터링 · 독거노인 응급관리시스템 도입(방문객 27% 증가, 독거노인 사고 미발생) 등이다. 또한 마을의 풍부한 관광 · 역사문화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부족하므로 관광객 수요에 부합되는 자원 조사 및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점을 보완하고 우수 사례를 지자체에 적극 홍보하여 올해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활용하여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울 · 부산영도 · 춘천 등 1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2017. 01. 17.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는 서울 · 부산영도 · 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16.12월)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도시재생일반지역’은 총 17곳으로 도시경제기반형 2곳과 근린재생형 15곳, ‘도시재생선도지역’은 1곳으로 도시경제기반형이 확정되었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백억원이 지원되고,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 총 4조 9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문화관광체육부,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14개 부처의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차 도시재생지구 16곳도 올해 상반기에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선도지역의 성과를 중점 관리하여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일반지역 및 선도지역〉				
지역	유형	지자체	사업구상(안)	
도시경제기반형	서울	노원 · 도봉구	수도권 동북부 320만 일자리 · 문화 중심, 창동 · 상계 新경제중심지	
		대구 서 · 북구	New Daegu Gate 서대구 재창조	
	부산	영도구	문화와 기술로 융합된 영도가치창조(영도 대동선수방 프로젝트)	
		울산 중구	원도심 强 · 小경제로 「울산, 중구로다(中具路多)」 실현	
중심시가지형	충북	충주시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都城)으로 도약	
		전주시 (완산구)	전통 · 문화의 계승과 창조를 통한 도시재생	
	경북	안동시	원도심 재생 및 지역 상생 거점, 안동웅부 재창조	
		경남 김해시	가야문화와 세계문화가 상생하는 문화명야 김해	
도시재생일반지역	근린재생형	서울 용산구	남산아래 첫 마을 ‘오(五)감(感) 오(五)락(樂) 문화예술마을’	
		서울 구로구	G-Valley를 품고 더하는 마을 가리봉	
		부산 중구	보수 Plus : 마이너스 보수동에서 플러스 보수동으로	
		부산 서구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 만들기	
	일반형	부산 강서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신장로 전원 교향곡’	
		인천 강화군	주민 삶의 질 향상, 문화 · 관광 활성화로 살기좋은 강화 바꾸기	
		경기 (소사구)	성주산이 품은 활기찬 소사마을	
		강원 춘천	옛길, 맛길, 물길 어우러진 소양 문화마을 만들기	
		전남 나주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도시 만들기	
		도시경제기반형	충북 청주	폐공장 부지(연초제조창)를 활용한 공예 · 문화산업지구

■ 함평, 전국 최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착공

2017. 03. 14.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공급과

국토교통부는 3월 14일(화),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일원 함평 향교 공공주택지구에서 함평군민의 주거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첫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등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어 함평 향교 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120호, 영구임대주택 30호 등 총 150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건설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 수립되는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은 타 공모사업에 응모 시 우선 선정될 수 있는데, 함평향교 마을계획사업 중 ‘안전하고 활력있는 대동로 만들기 사업’이 ‘지역수요 맞춤형사업 공모’에 가점을 부여받아 선정(2015년 5월, 국비 15억원)되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함평 향교 지구가 군 중심지로서 군청 · 면사무소, 5일장 · 초등학교 · 병원 등 각종 공공 ·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인근에 동함평 산업단지(2.1km), 명암 축산특화 농공단지(3.8km)가 최근 준공되는 등 배후 주거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함평군의 주거복지 향상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달동네 등 16곳, 새뜰마을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

2017. 03. 15.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는 3월 15일(수)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사업」 도시 지역 대상지를 선정했다. 총 34개 지역이 신청하여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달동네 및 공단 · 공장 배후지역, 기반시설이 열악한 규제지역 등 총 16곳이 선정되었고, 올해 국비 40억원을 시작으로 4년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 선정지역〉

시도	대상지역	시도	대상지역
서울(1)	금천	강원(3)	속초, 영월, 태백
부산(3)	북구, 사상, 사하	충남(2)	보령, 홍성
인천(1)	동구	전북(1)	김제
대구(1)	남구	경북(1)	영주
광주(1)	남구	경남(2)	김해, 밀양

〈선정지역 유형별 사례〉

유형	현황사진	지역특징	대표지역
산간 달동네	 부산 사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원	산사태, 화재 등 안전 취약/ 하수도 · 도시가스 보급 안 됨	강원속초, 강원영월, 광주남구, 부산사하, 부산사상, 경북영주, 경남밀양
공장 배후 지역	 경남 김해시 불암동 양장골마을 일원	공단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소음, 분진, 악취 등에 취약	인천동구, 경남김해
규제 지역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10리 다운지구 일원	재정비, 재개발구역 해제지역/ 미군부대주둔 등 개발제한지역	서울금천, 부산북구, 충남홍성, 대구남구
기타 불량 주거지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소도 구도심마을 일원	폐광, 도심공동화 등에 따른 불량 주거지역	충남보령, 전북김제, 강원태백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① 화재, 긴급의료수송 등을 위한 마을 안길 개설, ② 산사태, 우수범람 방지를 위한 재해방지시설 집중 지원, ③ 공장 배후지역 등 주택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집수리와 함께 공 · 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 홈 등 임대주택 조성, ④ 공동화장실 확충, ⑤ 지역 내 일자리 ·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뜰마을사업은 기존 사업지구 총 52개소와 올해 선정된 16개 지역을 더해 전국적으로 68개소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안전의 담보(재해예방 · 시설보강), 불결한 환경의 개선(악취 · 오염), 기초기반 시설 확충(문화 · 체육 · 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올해 2,400호 선정

2017. 03. 23.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공급과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참여 지자체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 · 면지역 중심으로 150호 내외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공급호수를 먼저 제안하는 수요맞춤형 공급방식이다. 지자체에서 건설 사업비의 10% 이상,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사업시행자(LH)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과 함께 대상지 주변의 낙후된 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이하 “마을계획”) 수립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에 약 2,400호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호수, 자원분담 방안, 마을계획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6월 1일(목)~8일(목) 1주간)하면, 사업시행자(LH)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7월 말(잠정)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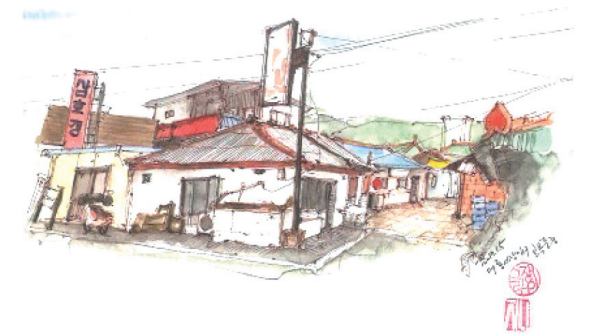
	기존 공공주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급지역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 및 읍 · 면 지역
개발방식	대규모 택지 개발	소규모 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 마을정비
공급규모	블록당 500호~1500호	150호 내외

■ 강화 교동도를 ‘평화와 통일의 섬’으로 개발

2017. 03. 28. |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과

행정자치부는 북한과 3.2km 거리에 있는 접경지역과 도서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개발이 더딘 강화군 교동도를 주민 · 기업 · 지자체 · 중앙정부 협업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섬’으로 개발하기 위해 3월 28일 협약식을 개최했다. 본 프로젝트는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섬 교동도 프로젝트’로 명칭을 정했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이너, 건축가, 작가, 관광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등 국민디자인단이 재능기부 차원으로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민간기업, 지자체, 중앙

정부는 재정적 · 행정적으로 지원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물인 ‘교동 제비집’과 ‘공동체 시장’은 2017년 3월에 준공되었다. 교동 제비집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관광 안내실, 화상강의실, 작은 갤러리, 영화관 등으로 활용하고, 공동체 시장은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구성하여 2017년 5월부터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교동도만의 관광자원인 대룡시장을 정비하고 기존 농로 등을 활용한 자전거 길과 걷는 길인 평화 나들길(39km)도 201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박성진 작가의 작품(대룡시장에 작품 전시 중)〉

■ 마을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지역발전 이끈다

2017. 03. 29. | 행정자치부 | 지역공동체과

행정자치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대해 시 · 도 관계자들 및 전문가가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3월 30일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 마을’에서 「공동체 지역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광주, 전남, 전북 등 3개 시 · 도 담당자와 마을사업 추진하는 주민, 중간지원조직, 한국지역진흥재단, 공동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한 특강 및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공동체 정책 설명, 3개 시 · 도의 우수사례 소개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 농어촌, 도농복합 등 공동체를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깨끗한 농업 · 농촌을 만들기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 추진 2017. 04. 05. | 농림축산식품부 | 지역개발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를 통해 ‘신뢰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Clean Agriculture Campaign(CAC)’을 추진했다. 지역과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한 이 캠페인은 농촌 · 농산물 · 농업인 3대 캠페인 핵심대상에 대해 마을별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민활동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7년에 10,0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체 농촌 마을의 50%인 20,000개 마을이 캠페인에 참여를 목표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캠페인 소개 및 국민 관심 환기를 위한 발대식 개최, ② 선도모델 제시를 위한 시범마을 200개소 선정, ③ 은퇴자, 학생, 농업인 대상 맞춤형 CAC 일자리 발굴, ④ 참여마을과 재능기부자의 매칭을 통한 재능 나눔 활성화, ⑤ 농촌계획대전 등 국민참여 공모전 개최, ⑥ 콘테스트 개최를 통한 우수마을 시상, ⑦ CAC 실천과제와 마을 · 권역 단위 지역개발사업 연계, ⑧ 협업과제 발굴 및 1과1촌 활동을 통한 참여기관 협업강화 등 캠페인 추진의 체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3대 핵심 대상별 30대 실천과제(사례)〉

깨끗한 농촌환경 (10)	깨끗한 농축산물 (10)	깨끗한 농업인 (10)
앞마당 정리 · 정돈	자율적 방역활동	화학약품 바로 알기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 농산물 생산 (이력기록)	축사 청결관리
폐영농자재 수거	적정 병해충 방제	가축 전염병 예방
음식물 쓰레기 자원 재활용	농약 안전 사용기준	농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마을 담장 가꾸기	환경 친화적 퇴 · 액비 사용	수확 농작물 위생적 관리
1마을 1가로수길	유용 미생물 사용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
1가구 1화단	농장 · 축사 출입 관리	주민 학습 커뮤니티 구축
축사 주변 정비	전염병 예방	현장포럼 실시
빈집 · 공터 가꾸기	국내산 조사료 확대	선진지 사례 연구
마을 대청소 날 적극 참여	정기 안전성 검사	마을 발전방향 설정

■ 범부처 · 전국 지자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방안 찾는다 2017. 05. 24. |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과, 도시경제과

국토교통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전국적인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실행과제를 점검하는 릴레이 의견수렴(5. 25.~) 및 통합 토론회(6월)를 진행한다.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적 처방으로 새정부 역점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역 등 노후 주거지 등을 폭넓게 포함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역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세부 사업 구성 및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등 부작용 방지대책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소통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시 · 건축, 문화 · 관광, 일자리 · 경제, 지역 · 농어촌 등 도시재생 뉴딜의 내용적 · 공간적 범위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학계전문가, 마을활동가, 지자체 등과 릴레이 회의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확대나 제2의 재개발사업 · 부동산 개발이 아니며, 전국을 대상으로 범부처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종합정책이고, 전국 도시쇠퇴 현황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타 부처 및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정책의 조기 정착과 성공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다고 했다.

〈도시재생 뉴딜 관련 그룹별 주요 의견수렴 내용〉

그룹	주요 의견수렴 항목	비고
학계 관계 부처	- 도시재생 사업유형 적정성 - 사업유형별 적정 사업규모(면적, 예산) - 부처 협업모델 발굴 및 통합 지원방안 등	대학, 연구원, 기재부, 문체부 등
지자체	- 유형별 사업후보지 분포 현황 - 지역별 도시재생 단위사업의 발굴 -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광역 · 기초 지자체
마을 활동가	- 지역별 · 전문분야별 마을활동가 역량 및 규모 - 마을활동가 지원 및 확대방안 등	도시재생 센터,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적 경제	- 지역별 · 업종별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 및 규모 -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사회적 협동 조합, 경제지원 센터 등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안갯속 도로, 첨단장비 도입 2017. 03. 28. | 국토교통부 | 첨단도로안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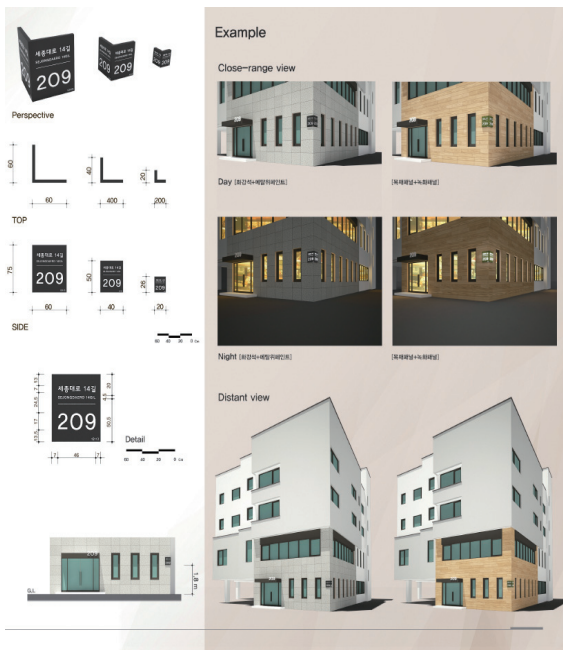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안개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인 안개 사고위험이 높은 국도 89개 구간에 대해 2017년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① 안개 잦은 국도 구간에 대해 115억원을 투입하여 안전시설을 개선(CCTV, 안개주의표지, 안개예고표지, 경광등, 비상스피커, 안개등, 안전시설 등), ② 안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조치 강화(국토관리사무소 등의 도로 순찰차 조기 투입, 경찰청과 협업하여 도로 순찰을 2배 이상 강화), ③ 소방서,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실전 훈련 시행, ④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안개발생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예정이다.

■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디자인과 예술의 옷을 입다 2017. 03. 28. | 행정자치부 | 주소정책과

행정자치부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발굴하기 위해 ‘아름다운 건물번호판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했다. 대상은 주거분야에 여백을 이해하는 건물번호판 ‘(이병진 作)’, 비주거분야에 ‘Address Cube(장준 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우수사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주)신세계인터내셔널 대표 차정호)’이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건물의 외벽과 모서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조화로우면서도 가독성 · 활용성이 뛰어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창의적이고 기발한 많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였다고 말했다. 우수 작품들은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려는 많은 국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 · 배포하고, 행정자치부 및 도로명주소 앱과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도로명주소에 보다 친숙해 지기를 바라며, 선정된 작품을 참고하여 아름다운 건물번호판을 많이 설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거분야(대상) : 여백을 이해하는 건물번호판〉



〈비주거분야(대상) : Address Cube〉



〈설치 우수사례(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9)

■ 택시표시등에서도 디지털광고 본다

2017. 05. 31. | 행정자치부 | 생활공간정책과

행정자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을 2017년 6월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한다. 이 사업은 택시표시등에 디지털광고를 표출하는 사업으로 총 200대 택시표시등 양면에 32개의 다양한 광고를 표출하여 시민들이 쉽게 디지털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된다. 택시 200대에 광고를 표출할 경우 연평균 20억원 규모의 매출이 예상되며, 디지털 매체 운영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약 50여 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작년 11월에 택시표시등 광고물 표시방법을 변경고시하였고, 택시표시등 디자인 심의(17.2.28. 한국옥외광고센터)와 안전도 검사(17.5.11. 교통안전공단)가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2018년 6월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택시업계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수렴 등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규모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고시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규 격	85cm(L) X 35cm(H) X 30cm(W) 이내	110cm(L) X 46cm(H) X 30cm(W) 이내
재 질	주요 골격 알루미늄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25kg 이하)
부착방식	택시상판 볼트 체결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방식 선택
디자인	단일한 표준디자인 제시	자유적으로 결정하되, 옥외광고센터 디자인심사 승인 후 시행
화면 지속 · 전환 시간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휘 도	일몰 전 7,000cd/m²(설계값), 일몰 후 300cd/m² 이하	일몰 전 2,000cd/m²(설계값), 일몰 후 200cd/m² 이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적용〉

충청남도 및 15개 시 · 군 정책 · 제도 동향

■ ‘범죄예방 환경조성’도 단위 기관 뭉쳤다

2017. 05. 31.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5월 30일(화) 충남지방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사)한국셉테드학회와 함께 범죄 없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에 상호 협력하고, 범죄예방에 공동 대응하며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충청남도’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 조성 시 건축 · 경관 · 디자인 심의 강화와 범죄예방 사업 확대 추진 등 디자인 정책의 지속적인 도입에 힘쓰기로 했고, ‘충남지방경찰청’은 노후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 추진 및 시범사업을 위한 5대 범죄 취약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대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생활 안전시설 구축과 취약지역 시설정비에 노력한다. 그리고 ‘(사)한국셉테드학회’는 신규 공동주택 범죄예방 설계자 문 및 디자인 · 시설분야 인증에 협력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개발과 교육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청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관별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 공동주택 및 학교 등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육구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충남 디자인 발전을 위한 관 · 학연계 MOU체결

2017. 06. 21. |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가 6월 21일(수)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과 지역발전을 위해 관 · 학 연계를 통하여 참신한 디자인과 디자이너를 육성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관 · 학 연계 교수 및 학생 교류지원, 우수인력 양성 및 인력지원, 지역프로그램 연계 교류 지원, 현장실무능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인턴쉽 및 취업기회 제공, 기타 양 기관의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교수 및 학생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 시행

2017. 03. 15. | 충청남도 | 내포신도시건설과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에 건설되는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에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하도록 해오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나 설계자들이 초기 건축계획의 설계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객관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각 용지별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잘 어울리도록 건축되고 전체적인 가로경관이 아름답게 조성될 수 있도록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저층부의 연속된 가로경관 형성,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통합적 설계방향 제시, 주차빌딩에 조형미를 강조하는 형태디자인 접목의 4가지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충청남도, 신재생 보급 103억원 투입

2017. 03. 20. | 충청남도 |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주민주도형 시범마을 조성, 공공건물 신재생 보급, 주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일반주택 1,300가구, 공공건물 28곳, 소방서 5곳, 에너지자립마을 3곳,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30곳이다. 일반주택 대상 사업은 주민들의 에너지비용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에너지자립형 모델을 발굴 및 추진하는 사업으로 71억원이 투입된다. 공공건물 사업은 충남도 인삼약초연구소에 3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비롯하여 시 · 군 하수처리장과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28곳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2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충남도 자체적으로 1억 7천만원을 들여 도내 소방서 5곳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자립마을 3곳에 3억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3억원이 투입되어 추진될 계획이다.

■ 충청남도, 고령자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공모 사업’ 선정

2017. 03. 21. | 충청남도 | 건축도시과

충청남도가 저소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공실버주택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을 건설,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에 선정된 보령 명천지구는 1개 단지에 복지시설 800㎡와 전용면적 26㎡~3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00호를 건설하게 된다. 총 사업비 126억원이 투입되며 202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에 계획되는 공공실버주택은 고령자 맞춤형으로

문턱 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설치 등이 반영되며, 복지 서비스로는 간호시설, 물리치료, 체력단련, 사우나, 소규모영화관, 시니어카페, 식당, 옥상 텃밭 등이 제공된다.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는 물론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공급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 이 가운데서도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 충청남도, 천안2산단, 충남 첫 재생사업 공모 통과

2017. 03. 28. | 충청남도 | 경제통상실 투자입지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에 천안 제2산단을 비롯해 3개 산단이 최종 통과됐다. 천안 제2산단은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 차암동 · 성성동 일원 82만 3천㎡에 반도체 ·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업체 63개사가 입주한 곳으로 1992년 조성된 곳이다. 이 곳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지만 입주기업들의 업종 분포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고 소기업이 많아 경쟁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요 진입도로가 협소해 교통체증과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124억원과 지방비 138억원, 민자 127억원 등 총 389억원을 투입해 주력 업종 기업 재배치, 신성장 유망 업종 추가 유치, 진입도로 2배 확장,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 · 확충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 및 도시

■ 천안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기본계획새 틀 짚대!

2017. 01. 10. | 천안시 | 도시계획과

천안시는 기존의 형식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천안시 행정구역 636.21km²를 대상으로 2035년까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을 만들어 천안시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은 공문화 과정을 도입한 주민참여형 기법으로 진행되며, 주민이 적극 참여한 도시의 미래상과 공간구조 비전 제시 등 열린 도시계획을 실현함으로써 기존과 다른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 삭막한 지붕에 ‘녹색’이 숨 쉰다.

2017. 02. 06. | 천안시 | 건축과

천안시는 부족한 도시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옥상녹화사업 건축물로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 총액의 50%,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선정된 건축물은 시에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정성이 확보되면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공공성이 높은 병원, 복지 ·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하거나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옥상녹화 활용성이 높은 상업용 · 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 공동주택 지원 사업 13개 단지에 4억 7천 5백만원 지원

2017. 03. 27. | 천안시 | 건축과

천안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한 주민 공동시설 등의 유지 보수 또는 안전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13단지에 4억 7천 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① 지하 주차장, 계단 등의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② 도로 및 하수도 보수와 옹벽 등의 안전진단 실시, ③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총 7단지에 약 2억원 지원, 안전관리 비용 4단지 4천만원, 복도 등 공동 전기료 2억 3천 5백만원 지원) 등이다. 천안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60%가 넘는 천안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하반기에도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천안시, ‘천안동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2017. 03. 28. | 천안시 | 체육교육과

천안시는 전교생이 사용할 만한 체육관시설이 없어 실내체육 수업과 운동부 지도육성을 할 수 없는 천안동중학교에 총 사업비 39억원(시비 3억원을 포함한 국비 9억원과 도비 6억원, 교육지원청 예산 24억원)을 지원하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3월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공주의 과거와 미래를 밝힐 ‘공주시행정역사관’ 설치 추진

2017. 02. 21. | 공주시 | 미디어담당관

공주시는 호서지방 행정의 중심지였던 공주의 위상과 행정의 역할을 널리 알리고자 2017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주시행정역사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행정역사관은 구 공주의료원 별관에 민선6기 공약사항인 공주역사인물관과 함께 선사시대,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근대이후 등 시대별로 공주 행정의 위상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국내 · 외 자매도시 기념 선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현재의 공주시를 돌아보고 미래를 밝혀가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 중부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상반기 준공 순조

2017. 03. 31. | 공주시 | 미디어담당관

공주시가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충청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는 공주시 금학동 주미산 산림휴양마을 내에 위치하며, 2만 7,570㎡의 부지에 교육실, 명상 체험실, 애족실(죽육시설), 샤워실, 허브 정원, 산책로 등이 조성된다. 현재 전체 공정을 90%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도로 포장공사 및 건축, 조경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주시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충청지역을 아우르는 중부권역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는 물론,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및 환경체험 학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조감도〉

■ 보령시, 공중화장실 문화 · 휴식공간으로 탈바꿈

2017. 02. 23. | 보령시 | 환경보호과

보령시가 명품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단순한 이용 공간에서 쾌적하고 산뜻한 문화 · 휴식공간으로 바꾸었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① 신축 및 개보수, ② 여성 안심벨 설치, ③ 시민평가단 운영, ④ 명절 연휴, 여름철 및 머드축제기간 특별관리, ⑤ 관리책임제 실시에 따른 우수 읍 · 면 · 동 시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운동가 · 분뇨수거협회, 여성 · 시민단체 등을 공중화장실 시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투명 · 객관성 구현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우수 관리 읍 · 면 · 동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읍 · 면 · 동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쾌적한 관리를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 아산시, 민원실이 달라지고 있다. 소통 공간으로 새 단장

2017. 02. 20. | 아산시 | 홍보담당관

아산시 민원실이 편안한 소통의 공간으로 새 단장되었다. 2월 13일(월)부터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터 운영과 함께, 그 동안 노후화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일괄 교체했고, 읍 · 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민원인용 컴퓨터 등을 일괄 전수 조사하였으며, 낡은 기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최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확대

2017. 02. 28. | 아산시

아산시는 지진 재해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 공사를 시행한 2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해주며,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의 혜택이 있다.

■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경험과 개선사례 함께 공유해요

2017. 03. 17. | 아산시 | 홍보담당관

아산시는 2017년 3월부터 ‘아산시 녹색건축물 견학 코스’를 운영한다. 이것은 그 동안 아산시에서 추진한 녹색건축물의 신축, 증축,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 등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건축 관련 대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 진행하는 견학 코스로, 방문자들에게 아산시의 다양한 녹색건축물을 소개하여 지속가능 발전도시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업무 추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견학코스는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 인주 제로에너지 경로당, 아산 중앙도서관, 시청 본관·별관 창호개선 사업, 시청 그린빛물인프라 조성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와 학생 약 45명이 방문하여 패시브 건축기법과 모니터링 사례를 견학하였으며, 군산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 시의원 및 관계자 15명이 방문하여 패시브 건축기법 적용사례와 적정 공사비 구현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 아산시, 장애인체육관 건립 기공식 개최

2017. 03. 29. | 아산시 | 공공시설과

아산시는 3월 24일(금) 아산시장과 도 · 시의원, 장애인 단체장과 회원,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장애인 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장애인체육관은 201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아산시 실용동 368-32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4,176㎡ 규모로 2018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골볼장을 겸용한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탁구장, 당구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공간이 마련되며, 야외에는 풋살장과 론볼장 등 야외 체육 및 휴게공간이 설치된다. 특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저변 확대와 더불어 체력관리와 운동 상담 및 적절한 운동지원을 위해 체력 측정실에 운동처방사를 근무하게 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본격화 된다

2017. 02. 02. | 논산시 | 평생교육과

논산시는 자산동 112번지 일원에 사업비 98억원, 연면적 3,288㎡, 지상 3층 규모의 ‘논산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설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 문화, 교육,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방형 복합문화 공간과 평생교육이 가능한 평생학습 융 · 복합 공간으로 구성 될 예정이다. 도서관 건물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 한글을 형상화 한 랜드마크적인 디자인 작품을 선정했으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7월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시립도서관 조감도〉

■ 계룡시, 건축물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

2017. 03. 07.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내진 보강공사에 따른 지방세 감면 확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까지 10~50%였던 감면율이 올해부터 50~100%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구조 안전 확인대상이 아닌 2층 미만(연면적 500㎡ 미만)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②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법상 ‘대수선’을 통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된다. 감면 신청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하여 계룡시에 신청하면 된다.

■ 계룡시,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017. 03. 23.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시민들의 다변화하는 복지욕구에 맞추어 통합복지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임시연 유동리

29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부지10,950㎡, 건물2,400㎡)로 시비 4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실, 감성체험놀이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착한가게 등 주요 기능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이 조성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건립 부지를 제6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 당진 신리성지에 국내유일 순교 미술관 개관

2017. 03. 24. | 당진시 | 홍보팀



〈순교 미술관-내부〉

천주교 대전교구 신리성지에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국내 유일의 순교 미술관이 3월 25일(토) 오후 3시 대전교구장인 유홍식 라자로 주교의 주례로 천주교 신자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했다. 당진시 합덕읍 신리성지 내에 자리 잡은 순교 미술관은 2013년에 착공하여 2014년 1,392㎡ 규모로 준공되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백 총 18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신리성지 관계자는 성지를 순례하고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순교 미술관의 작품들을 통해 신리의 다섯 성인과 순교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의 삶을 본받아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부여군, 장애인 ·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2017. 03. 10. | 부여군 | 자치행정과 공보

부여군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 중 장애인 · 고령자를 대상으로

13가구를 선정하여 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2017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주택 개보수 사업 범위는 지붕개량, 도배장판, 입식부엌 설치 및 화장실 개선, 장애인 · 고령자 편의시설 등이고, 가구당 6백만원 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 중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다.

■ 부여군,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 나서

2017. 03. 22. | 부여군 | 자치행정과 공보

부여군은 불법건축물 정비활동 강화로 질서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하우스형 축사 및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모든 건축물은 건축하기 전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건축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재산상 불이익(최고 3년 이하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과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때까지 건물시가표 준액의 50%이내 이행강제금 부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설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물은 부여군과 사전 협의를 하면 무료 설계 지원도 가능하다. 부여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건축 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불법건축물로 인한 재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 서천군, 건축행정 건실화 우수기관 선정

2017. 03. 03. | 서천군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서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지자체별 인구 규모에 따라 일반부문과 특별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평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으로 정성적 · 정량적 평가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여한다. 서천군은 지속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품격 있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등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성군, 청소년 성문화 센터 개소

2017. 03. 07. | 홍성군 | 기획감사실

홍성군은 충청남도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해 체험관 중심의 성문화 센터를 개소했다. 체험관 주요 시설은 ① 자궁방 탐침, ② 임신과 출산, ③ 사춘기의 성, ④ 성폭력 및 성매매 바로알기, ⑤ 성적의사결정훈련 등 다양한 테마 시설로 이루어져 있고, 프로그램은 ① 찾아가는 성교육, ② 가족 성교육, ③ 청소년 동아리, ④ 성교육 자원 활동가 양성, ⑤ 신고 의무자 교육 등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인식 개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문화 센터는 아동청소년과 대학생 및 장애인, 성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을 위한 참여중심의 맞춤형 성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 홍성군 천수만권역 '숙동갯벌체험관' 개관

2017. 04. 07. | 홍성군 | 기획감사실

홍성군은 4월 5일(수) '숙동갯벌체험관'을 개관했다. 숙동갯벌 체험관은 연면적 490㎡, 2층 규모로 1층은 락커룸 및 남녀 샤워실로 구성하였고, 2층은 상설체험관 '갤러리 짚은', 커뮤니티 공간, 화장실 및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여 체험객의 불편함을 개선하였다. 홍성 8경 중 하나인 궁리포구 인근에 자리한 갯벌체험관은 잔잔하면서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을 앞에 두고 숙동 전망대 내에 위치하여 많은 관람객 및 체험객 방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숙동갯벌체험관-외부〉



〈숙동갯벌체험관-내부〉

■ 예산군, 보건소 신축공사 본격화

2017. 04. 03. | 예산군 | 기획실



〈보건소 조감도〉

예산군은 다양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소 신축 공사를 착공했다. 예산읍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블록 공공청사용지 부지 내에 신축되는 보건소는 2016년 3월 설계 공모 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총 사업비 99억원(국비 31억원, 도비 7억원, 군비 61억원 등)이 투입되어 연면적 4,254㎡,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간 구성은 ① 지하 1층 : 기계실, 전기실, 방역창고, 저수조실, ② 지상 1층 : 민원접수실, 내과,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③ 지상 2층 : 금연상담실, 운동치료실, 인지재활치료실, 재활작업치료실, ④ 지상 3층 : 치매상담실, 치매주간보호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⑤ 지상 4층 : 회의실, 통합사무실, 전산실, 문서고 등 부속 시설 등이 조성된다. 2018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보건소가 준공되면 현재 예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소를 군청 신청사 부지 내로 이전할 계획이다.

■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순조롭게 진행 중

2017. 05. 02. | 예산군 | 기획실



〈노인종합복지관 조감도〉

예산군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전문 여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총 80억여원(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4억여원 등)을 투입하여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 일원에 연면적 3,498㎡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된다. 공간 구성은 ① 지하 1층 : 식당 및 주방, 기계실, 전기실, 세탁실 등, ② 지상 1층 : 대강당과 프로그램실, 노인 주간보호시설, 자원봉사자실, ③ 지상 2층 : 복지관 사무실, 컴퓨터실, 서예실, 장기·바둑실, 동아리실, 교육실 등, ④ 지상 3층 : 노인회사무실, 대회의실, 체력단련실, 당구장, 탁구장 등이 조성된다. 예산군은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되면 현재 발연리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복합문화복지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다.

경관 및 공공공간

■ 천안시 '청사공원', '충남형 도시공원조성 공모사업' 선정

2017. 03. 08. | 천안시 | 공원관리과

천안시가 충청남도 주관 '2017년 충남형 공원조성사업' 공모에 성정동 '청사공원'이 선정되어 도비 2억원을 지원받는다. 충남형 공원조성사업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공원을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원시설은 노후 및 외부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저조하나, 총 5억원(시비 3억원 포함)을 지원하여 데크, 야자매트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고, LED등과 경관조명 설치,

수목간벌 등으로 어디서나 보이는 밝고 안전한 개방형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천안시, 젊음이 가득한 ‘대학인의 거리’ 조성

2017. 04. 14. | 천안시 | 건설도로과

천안시가 5개 대학이 밀집한 안서동 지역에 대학생들의 여가 활동 및 생활공간 활용을 위한 ‘대학인의 거리’를 조성한다. 안서동은 단국대, 호서대, 상명대, 백석대, 백석문화대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백석문화대학입구~천호지길~호서대입구를 3구간으로 나누어 조성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A구간 : 색채로 새롭게 디자인한 도로 및 보도를 확보하여 이야기가 있는 공간 조성, ② B구간 : 천호지 카페거리 주변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공연장 조성 및 포도밭으로 사용 중인 공간에 프리캠핑장이나 푸드트럭 공간 조성, ③ C구간 : 호서대~각원사 길은 차로 확장 및 조명 설치형 보도 조성, 안서천 주변은 데크 복개로 공간을 확보하여 소공연, 버스킹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공주산성시장, ‘지역선도시장 공모사업’ 선정

2017. 03. 14. | 공주시 | 미디어담당관

공주시가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선도시장 공모사업에 ‘공주산성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역선도시장사업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으로 공주시와 산성시장상인회가 2016년 1월 중소기업청에 신청하여 현장평가 등을 거쳐 전국 7곳 지역선도시장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공주산성시장은 특화시장 개발, 산성시장 스토리텔링개발, 전통 자장거리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2019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지역선도시장’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조성

2017. 04. 10. | 공주시 | 미디어담당관

공주시가 「2017년 충청남도 범죄환경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로 신관동 매산동길 일원이 최종 선정되어 범죄예방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 3억원(도비 1억 2천만원 포함)을 투입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전한 시민의 삶을 위한 셉테드

(CPTED) 사업을 시행한다. 셉테드(CPTED)란,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공주시는 ‘학사골 동행’을 사업 기본방향으로 하여 가로등 정비 및 CCTV 설치, 안심 비상벨 설치, 가스배관도색 등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매산동 안전마을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 공주산림휴양마을 관광자원화사업 착공

2017. 05. 17. | 공주시 | 환경자원과



〈마스터플랜〉

공주시는 공주산림휴양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금학생태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과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한다. 국비 10억원, 도비 6억 5천 9백만원, 시비 16억 1천 7백만원이 투입이 되는 이번 사업은 공주산림휴양마을 내 목재문화체험장, 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등과 연계한 복합문화관광자원 시설 조성 사업이다. 주요 시설은 ① 어린이 물놀이시설 : 1,000㎡ 규모의 물놀이장 및 물놀이체험시설 등(겨울철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 ② 사계절 썰매장 : 5개(85m) 레인 설치, ③ 1,300㎡ 규모의 초화원 조성, ④ 화장실, 샤워실, 데크무대, 이벤트마당, 가로등 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공주시는 5월 중 착공하여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7월 중에, 사계절 썰매장은 11월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 보령시, 전통시장 상권 살린다.

2017. 03. 07. | 보령시 | 문화공보실

보령시는 중 · 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서는 ① 시장별 특성화 사업으로 고객이 찾아오고, 상인단체 조직화로 협상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전략, ② 품목별 점포 재배치로 고객편의를 극대화하는 시설 현대화, ③ 목표고객 확장을 통한 마케팅 활동 강화와 업종 변경을 통한 시장 체질

개선, ④ 광고 · 홍보 활동 강화로 고객 유치,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운영 효율화 등 4대 전략 방향과 8대 전략과제가 논의되었다.

■ 아산시, 2017년 경관개선사업 추진한다.

2017. 01. 16. | 아산시 | 건축과

아산시는 활기찬 마을조성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2017년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경관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36개소의 마을에 노후된 마을 담장 정비와 벽화그리기 및 마을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다. 아산시는 경관개선사업이 낙후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여 방문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녹색도시 아산, 환경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선정

2017. 02. 02. | 아산시 | 홍보담당관

아산시는 2017년 환경부가 주최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공모사업’에 환경과학공원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나비 등 곤충류 소생물 서식처 조성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4억 5천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친환경에너지단지 조성, 생태창포원 개수, 생태환경개선사업, 생태곤충원 확충사업과 연계한 유휴부지에 나비와 잠자리 등 곤충류 소생물 서식처 복원으로 생물다양성을 증대시키고, 더불어 환경과학공원 주변 순환형 생태벨트 구축을 통해 시민 및 유 · 청소년들이 자연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산시는 시설설 관리공단, 생태곤충원, 환경단체 등과 연계한 전문가, 생태해설사를 활용하여 소생물 서식처 상시모니터링 및 가족단위 생태관찰 체험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했다.

■ 장항선 폐철도 부지 획기적으로 바뀐다.

2017. 02. 24. | 아산시 | 도로과

아산시가 2008년 장항선 직선화 개량사업 완료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산시와 (주)아산그린에너지는 ‘자전거도로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해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아산그린에너지가 사업비 약 400억원을 투자해 2017년 말까지 방축동~신창면~선장면~도고면에 이르는 폐철도 부지에 자전거도로 약 14km와 태양광발전소 9.4MW급을 설치·운영하고, 아산시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는 아산 서부 지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망 확충으로 시민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당진천,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변신

2017. 01. 10. | 당진시 | 홍보팀



〈저수호안 제방축조〉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3년여간의 공사 끝에 1월에 준공했다.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당진천 상류인 순성면 성북제 3교부터 하류인 우두동 시곡천 합류부까지 총연장 9.44km 구간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151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약 7km 제방 축조 및 확장(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② 조형물을 가미한 당진3교 재설치 등 노후교량 4개소 재가설, ③ 3.8km 저수호안 정비 및 여울 2개소 설치, ④ 시내를 경유하는 저수호안 1.87km 구간에 시민들을 위한 산책로 조성 등이다.

■ 당진시, 시민 녹색쉼터 대폭 확충

2017. 02. 21.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가 8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위한 녹색 휴양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 ‘시민 친화적 녹색공간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쌈지공원(읍내동 당진초등학교 앞 교통섬에 조성), ② 녹색쌈지숲(500㎡ 규모, 녹색경관 제공 및 소음 스트레스 해소), ③ 우강청사공원(우강면사무소 신청사 앞 5,500㎡ 규모, 다양한 수목과 휴게공간 조성), ④ 소들공원(합덕읍

운산리 일원 1,500㎡ 규모, 도로 개설에 따른 잔여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수목식재), ⑤ 송암공원 숲가꾸기 사업, ⑥ 맞춤형 주민복지 환경조성사업(정자목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⑦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합덕읍 남부노인복지관 1억 3천만원 지원), ⑧ 도시숲 및 명상숲 조성사업(석문면 장고항리 일원 2km구간 및 합덕읍 성동리 일원 5km구간, 호서고등학교 조성) 등이다.



〈합덕여자중고등학교 명상숲〉

■ 당진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 본격화

2017. 03. 24.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는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의 기공식을 3월 23일(목)에 갖고, 공사에 착수했다. 총 사업비 291억원이 투입되는 난지섬 연도교 건설사업은 당진시 석문면에 위치한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연결하는 0.4km의 교량과 2.13km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진시와 시공사는 4월부터 연결도로 토공사와 해상 교량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2020년에 연도교 건설이 완료되면 동일 생활권 도서인 대난지섬과 소난지섬을 배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난지섬 연도교 조감도〉

■ 부여 세계유산, ICT콘텐츠로 사비백제 위상 부활

2017. 02. 21. | 당진시 | 홍보팀

부여군은 세계유산인 능산리고분군과 나성지구에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객이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는 야간경관 조성과 최첨단 ICT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① 능산리고분군을 중심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비시대 6대 왕에 얽힌 스토리와 고분군 변천과정을 알리는 스톤아트길 조성, ② 백제금동대향로와 창왕명 석조사리감 발굴장소를 재현하여 증강현실(AR)로 들려주는 콘텐츠 개발, ③ 능산리고분군과 나성정비구간에 15억원의 사업비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 ④ 능산리고분군 전시관을 증축 리모델링하여 모형제작 및 왕실제사 관련 그림자쇼 등 관람객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이다.



〈나성 경관조명 조감도〉



〈금동대향로 인터랙션〉

■ 부여군, '궁남지 연지조성 작업' 착착

2017. 04. 17. | 부여군 | 자치행정과 공보

부여군은 부여서동연꽃축제의 주무대인 궁남지를 향기로운 연꽃의 장으로 바꾸는 '궁남지 연지조성' 작업을 실시했다. 서동공원에 연지 215,000㎡, 궁남지 32,000㎡, 주차장 68,855㎡ 등 총 315,855㎡ 면적에 연과 개나리, 철쭉 등 50여종의 식물이 식재된다. 특히 기존 수련지에 호수열대수련, 신품종 수련 등을 식재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새로 수조식 수련지를 만들어 수생식물, 온대수련, 열대수련을 심어 차별화된 연지를 조성하며, 노후화된 원두막, 물레방아, 기존 터널 등 시설물을 교체 및 수리하고, 박과 수세미 등을 식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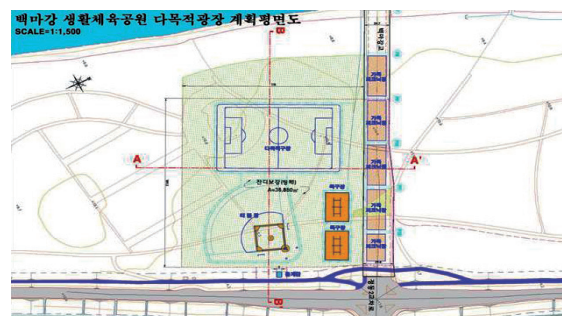
터널을 설치하여 안전한 휴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7월 7일에 열리는 부여서동연꽃축제를 대비하여 연지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궁남지-전경〉

■ 부여 백마강 둔치, 생활체육 공간으로 조성

2017. 04. 19. | 부여군 | 자치행정과 공보



〈생활체육시설 다목적광장 평면도〉

부여군은 백마강변을 따라 펼쳐진 잔디광장에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 백마강교 39,000㎡(11,700평)의 면적에 8억원을 지원하여 티볼장 1면, 다목적광장 1면, 족구장 2면, 가족피크닉장 5개소 등을 설치한다. 부여군은 2015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생활체육공원 다목적광장 조성을 최종 허가받았다. 다목적광장은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홍성군, 홍주읍성 주변 역사문화 관광자원 조성 본격화

2017. 04. 10. | 홍성군 | 기획감사실

'천년 홍주 조양문'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홍성군의 '천년 홍주 조양문 거리 개선사업'이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2017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되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보도블록 정비 및 전신주 지중화 사업, 야간경관 정비사업인 홍주교 경관조명과 가로등 설치 등이다. 홍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양문을 지역문화와 향토자원을 연계한 야간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조양문〉

■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무장애 숲길' 조성 착수

2017. 02. 24. | 예산군 | 기획실

예산군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휴양림 내 '무장애 숲길'을 조성한다. 무장애 숲길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총 1.4km에 조성되는 휴양림 내 경사가 완만한 무장애 힐링 산책길이다. 예산군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소외된 교통약자 계층이 숲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 태안군,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박차

2017. 03. 03. | 태안군 | 공보팀

태안군은 충청남도가 주관한 '2017년 충남형 공원조성사업' 공모에 '남문리 공원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충남형 공원조성사업은 도심 내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와 야간조명 등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다. 남문리공원조성 사업은 2,058㎡ 면적에 조성되고,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구상단계에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형 특성은 물론 이용자 니즈가 반영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을만들기

■ 보령시, '2017년 도시지역 새들마을 공모사업' 선정 2017. 03. 16. | 보령시 | 문화공보실

제26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7년 새들마을사업 대상지로 수청지구(명천6동)가 선정되어 2020년까지 최대 45억원을 지원받는다. 새들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기본적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붕 개량,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설치, 마을카페나 도서관, 공동 육아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청지구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골목길 정비, 주택정비 지원 등을 추진해 안전 확보는 물론, 생활 인프라 구축, 휴먼케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역량강화 등 '살고 싶은, 미소가 넘치는 수청마을'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건강도시 논산' 청사진 나왔다 2017. 04. 03. | 논산시 | 건강도시지원과

논산시는 국 · 소 · 단장, 관련 실 · 과장과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산시 건강도시 발전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건강도시 모형에 부합하는 논산시 시책과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도시환경, 물리적 환경, 생활공간시설, 건강행동, 보건복지서비스 등 5개 분야의 건강도시 사업이 제안되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 대기 질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생태친화적 환경조성, 안정된 보육환경조성,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금연환경조성, 재난대비 응급의료 안전망 확보 등 23개 실천 방안이 제안되었다.

■ 논산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2개소 선정 2017. 04. 26. | 논산시 | 건강도시지원과

논산시가 공모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에 내동 리벤하임 아파트와 은진면 남산3리 2개소가 선정됐다. '건강마을 만들기'는 건강도시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마련되었으며, 논산 지역 내 2개 마을을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계단 설치, 금연

아파트 지정,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마을 인증 현판 부착 등을 지원받게 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동아리 구성 및 활동을 하게 된다.

■ 금성면 화림1리 '2017년 새들마을 공모사업' 선정 2017. 03. 31. | 금산군 | 문화공보관광과

금산군 금성면 화림1리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17년도 새들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새들마을사업은 노후 슬레이트 주택, 재래식 화장실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확보와 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복지 등의 휴먼케어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금성면 화림1리는 2017년부터 3년간에 걸쳐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① 기반시설정비(구거범람 및 유실사면 위험요소 제거, 상하수도 설치, 재래식 화장실 정비), ② 주택정비(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③ 휴먼케어(집수리교육,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등이 추진된다. 금산군은 5월부터 주민의 의견과 지역의 환경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성면 화림1리〉

■ 서천군, '2017년도 농어촌 새들마을 공모사업' 선정 2017. 03. 31. | 서천군 | 정책기획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농어촌 새들마을 공모사업에서 서천군 마서면 동죽마을(계동2리)이 선정됐다. 농어촌 마을의 주거생활이 열악하고, 안전과 위생이 취약한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행복 실현을 위해 ① 슬레이트 지붕개량 및 단열보강 등 주택 정비, ② 빈집 철거 및 위험담장 정비, ③ 도로·배수로 및 위험 석축 정비, ④ 마을회관 리모델링 및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시행된다.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형 새들마을 공모사업

으로 3개 군이 선정되었으며, 이중 한 곳인 마서 동죽 마을에는 2017년부터 3년간 25억원이 투입되어 주택정비 및 경관 개선과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 도량살리기! 주민과 함께 합니다. 2017. 04. 20. | 청양군 | 환경보호과

청양군은 하천의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복원을 위한 도량살리기 사업을 추진한다. 청양읍 청수2리 박정골 도량을 비롯한 6개소에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청양군은 사업추진 및 행정을 지원하고, 마을주민은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도량의 사후관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교육을 통한 도량관리 능력 제고를 지원한다.

■ 홍성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개소 2017. 04. 04. | 홍성군 | 기획감사실



홍성군은 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을 밀착 지원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을 청운대학교 예지관(2층)에서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홍성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앞으로 주민과 행정 간 협력은 물론 민간과 민간단체의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마을 자원 조사 및 연구, 맞춤형 교육, 컨설팅, 홍보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거버넌스 홍성통의 민간 코디네이터 역할과 희망마을협의회 활성화 지원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공공시설물 및 매체

■ 천안천변 '눈들교' 이젠 안전하게 보행하세요 2017. 03. 14. | 천안시 | 동남구 건설교통과

천안시 동남구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어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았던 천안천변의 '눈들교'에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그간 눈들교 교량에 인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었으나, 외벽을 이용한 인도 데크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로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봉서산 등산로 야간 산책을 위한 'LED가로등' 설치 2017. 04. 17. | 천안시 | 공원관리과

천안시는 시민들이 야간에 봉서산 등산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가로등을 LED가로등으로 교체했다. 교체한 LED가로등과 번호판으로 야간에 우범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천안시는 주변 경찰서 및 소방서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 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공주산성시장, 점포마다 설치된 '감성문패' 눈길 2017. 01. 11. | 공주시 | 미디어담당관

공주시는 '공주산성시장 감성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인협회 공주지부의 협조를 받아 나태주 시인 등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인들의 시를 활용한 감성문패를 산성시장1길 150m 구간 40여개 점포에 조성했다. 감성문패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관장식으로 디자인된 문패에 시인들의 다양한 시들이 담겨있어 산성시장의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감성어린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주시 감성문패〉

■ 유네스코 세계유산 디자인의 건물번호판 설치

2017. 03. 22. | 공주시 | 미디어담당관

공주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에 걸맞은 명품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세계유산으로 디자인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공산성 남문 입구와 백미고을 일원에 설치했다. 자율형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공주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판은 독특하고 개성있게 건물번호판을 제작 · 설치함으로써, 크기와 디자인이 획일화 되어 있는 기존 건물번호판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세계유산과 공주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공주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개인 건물에도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 계룡시, 교통사고 제로도시 만든다.

2017. 01. 20.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가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의 시설물 안전도 개선 정비 등 교통사고 사망자수 제로화를 목표로 '제3차 계룡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② 불법주정차량의 집중 지도단속, ③ 야간 횡단보도 사망사고 발생지점과 야간 보행자 대상으로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과 가로등 설치, ④ 운수업체 안전교육 강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캠페인 전개 등으로 안전시설과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 계룡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2017. 02. 09. | 계룡시 | 문화체육과



〈주차표시-보호자 운전용〉

〈주차표시-본인 운전용〉

계룡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신규 주차표지로 전면 교체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 ·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이 구분된 원형의 디자인으로 주차불가 자동차와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 계룡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017. 02. 17. | 계룡시 | 문화체육과

계룡시는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6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항목은 장애물 적재, 바닥재 굳어짐 · 패임, 미끄럼틀 보호벽 · 계단, 시소 무게균형, 연결부위 견고성 및 균형성, 그네 고리풀림, 볼트 · 나사풀림 등 각 놀이 시설 및 부대 시설 전반이 포함된다. 점검 내용은 관리주체의 상시 안전관리 실태 확인, 안전관리 교육이수, 안전점검 기록보관 등이며, 전체 놀이시설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노후되거나 위험한 시설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 무서웠던 밤길, 이제는 안심하세요

2017. 01. 06. | 당진시 | 홍보팀

당진시는 남산공원과 당진 초등학교, 여성안심구역 등 우범지역 22개소에 방범용 CCTV와 연계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시범 · 운영했다. 로고젝터는 이미지 글라스에 안전문구나 그림을 LED에 투사시켜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를



〈로고젝터 활용사례〉

비추는 일종의 빔프로젝트 장치로, 빛 번짐 우려가 없어 야간에 CCTV 안내 및 방범 순찰 구역 문구를 빛으로 투사해 잠재적 범죄를 차단하고, 시민들의 야간 보행 시 시야확보에도 도움을 준다. 시범 설치한 로고젝터는 현재 야간 시간대인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에 설치된 방범용 CCTV와 연계한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청양군,交通安全표지판 대대적으로 정비 실시

2017. 03. 16. | 청양군 | 기획감사실

청양군은 청양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交通安全표지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 전도된 표지판, 파손된 표지판, 회전으로 운전자가 볼 수 없는 시설물 등은 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과 운전자 시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지역이나 시계가 불량한 장애물 지역 및 급커브 지역은 중점적으로交通安全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다.

■ 예산군, 공공기관 청사 외벽 'LED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

2017. 04. 11. | 예산군 | 기획실



〈청사 LED 건물번호판〉

예산군은 공공시설 청사 외벽에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 도로명 주소 찾기 편의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면사무소 등 3개소(삼교읍사무소, 신양면사무소, 대술면사무소)의 시설을 선정하여 군민들이 야간 긴급상황 발생 시, 불빛이 없어도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제작 · 설치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명 주소 홍보 효과로 도로명 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 태안군, '보다 안전한' 도로 만들기 총력!

2017. 04. 06. | 태안군 | 공보팀

태안군이 본격적인 관광시즌을 맞아 주요 도로에 발광형 LED 교통표지판을 설치, 관광객 및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나선다. 설치된 LED 표지판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제품으로, 군은 총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 위험 지역에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추후 LED 표지판 설치를 군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군은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성이 높은 안면읍 및 원북면 2개소에 무인단속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각종 고품질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Column

▶ 공간의 재탄생, 오늘의 공간들

사진 1-1. 영국 런던, 코벤트 가든(Covent Garden),
<http://www.britainbyheart.com/2011/london-with-kids-part-two/covent-garden/>
사진 1-2.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내부, © 김주연
사진 1-3.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외부, © 김주연
사진 1-4.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외부 전경, © 김주연
사진 1-5. 상하이, 1933 라오창팡(老场坊)-내부, © 김주연

Review : 국내외 디자인 선진사례

▶ 美麗之島(FORMOSA) : 타이완의 어제와 오늘

사진 2-1. 홍모성, <https://ko.wikipedia.org>
사진 2-2. 홍모성 구 대사관 모습, <https://ko.wikipedia.org>
사진 2-3. 화산1914, <http://www.filmcommission.taipei>
사진 2-4. 보피라오 역사거리, <http://cwfoodtravel.blogspot.kr>
사진 2-5. 송산문창원구(松山文創園區),
<http://m.filmcommission.taipei>
사진 2-6. 문화창의산업원구(臺中文化創意產業園區),
<http://travel.taichung.gov.tw/>
사진 2-7. 보장암 국제예술촌, <http://www.filmcommission.taipei>
사진 2-8. 공원안과 내부/외부, <http://travel.taichung.gov.tw/>

▶ 공원이 아닌 공원

사진 2-9. 빗물 정화 연못 상부의 스카이워크(skywalk)는 방문객들에게 습지 위를 걷는 경험과 전망 제공, www.asla.org
사진 2-10. 스카이워크와 대나무 파빌리온은 휴식공간과 습지대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 제공, www.asla.org
사진 2-11. 전망대로 연결되고 있는 스카이워크와 하부 플랫폼, www.asla.org
사진 2-12. 이누지아 세이렌조 외관, © 김현
사진 2-13. 이누지아 세이렌조 외관,
<http://benesse-artsite.jp/seirenscho>
사진 2-14. 이누지아 세이렌조 내부,
<http://benesse-artsite.jp/seirenscho>
사진 2-15. Lowline Lab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한 테스트 사이트뿐 아니라 뉴욕시의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활용, 평일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 멘토십 및 직업 훈련장소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하여 전시행사 진행, www.thelowline.org

사진 2-16. 개발 이전의 로우라인 모습, www.thelowline.org
사진 2-17. 로우라인 내부, <https://ko.wikipedia.org>
사진 2-18. Bench Garden 메인거리,
<http://www.yoyogi-village.jp/>
사진 2-19. 할로인 축제 개최, <http://www.yoyogi-village.jp/>
사진 2-20. 일요 마켓 이벤트, <http://www.yoyogi-village.jp/>
그림 2-1. 설계전략 다이어그램, www.asla.org
그림 2-2. Remote Skylight 다이어그램, www.thelowline.org

▶ 농어촌지역의 어린이 놀이공간 ‘신기방기 놀이터’

사진 2-21. 완주군 비봉면 ‘신기방기 놀이터’, © 박혜은
사진 2-22. ‘신기방기 놀이터’ 주변 시설, © 박혜은
사진 2-23. ‘신기방기 놀이터’ 외부 공간, © 박혜은
사진 2-24. 방과 후 ‘신기방기 놀이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 박혜은
사진 2-25. ‘신기방기 놀이터’ 외부 공간, © 박혜은
사진 2-26. ‘신기방기 놀이터’ 내부 공간, © 박혜은
사진 2-27. ‘신기방기 놀이터’ 내부 공간, © 박혜은
사진 2-28. ‘신기방기 놀이터’ 안전수칙 안내판, © 박혜은
사진 2-29. ‘신기방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 박혜은

▶ 붉은 언덕(홍현:紅岬) 위의 열린 공간, ‘북촌마을안내소’

사진 2-30. 현황사진-화동고갯길에서 본 용벽 전경, © 김성희
사진 2-31. 광장-서울교육박물관으로 이어지는 계단, © 김성희
사진 2-32. 광장-소공연 및 축제의 장소로 활용, © 김성희
사진 2-33. 공중화장실 외부, © 김성희
사진 2-34. 공중화장실 내부, © 김성희
사진 2-35. 북촌전시실 외부, © 김성희
사진 2-36. 관광안내소 내부, © 김성희
사진 2-37. 배치도-좌측부터 북촌전시실/북촌마을안내소/엘리베이터/공중화장실,
<http://blog.naver.com/jongno0401>
사진 2-38. 관광안내소 외부, © 김성희

Team : 논산시

▶ 공공디자인이 이끄는 연산역의 행복한 변화

사진 3-1. 연산역 옛 풍경, 논산시 도시주택과
사진 3-2. 렛츠 컨퍼런스 진행모습, 논산시 도시주택과
그림 3-1. 연산역 공공디자인 적용 구상안, 논산시 도시주택과
그림 3-2. 객차 내부 조성 예, 논산시 도시주택과
그림 3-3. 객차 내부 조성 예, 논산시 도시주택과